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과 방법론

◎ 수련활동의 기본철학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을 문제의 시각에서 그 증상을 진단하고 처방하려는 소위 원인(cause) → 결과(effect)의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일관해 왔다. 물론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 인간현상을 밝히려는 시도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시각이 요청되는 청소년문제에 원인 → 결과의 패러다임을 적용할 경우 그 패러다임에 내재된 오류가 명백히 드러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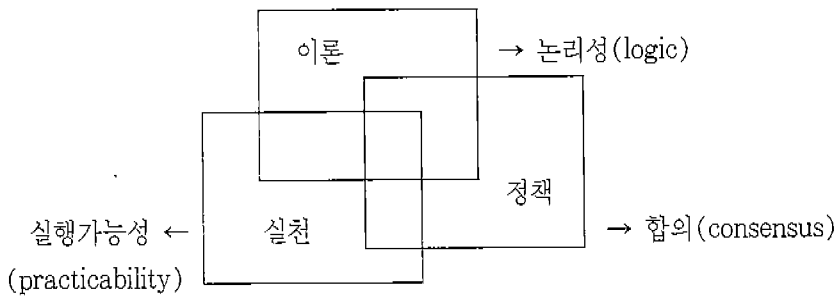
검은색 안경을 쓰면 온세상이 검게 보이는 것과 같이 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정형화된 시각은 청소년의 삶을 왜곡시킨다. 이 패러다임으로 현상을 들여다보면, 현상을 파악하려는 주체(subject)와 파악되는 대상인 객체(object)간의 엄격한 상호분리를 전제로 인식의 과정이 시작된다. 예컨대, 청소년문제를 인식할 경우에 어른이 주체가 되고 아이들은 탐구의 객체로 분리되어 문제의 원인을 아이들에게서 찾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수련활동은 청소년문제가 본질적으로 원인 → 결과의 정형화된 시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기본가정을 갖는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지향적이어서 이론적 논의를 중시하는 원인 → 결과의 접근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말 청소년문제는 학자(이론가)들의 전문적 논의로 해결되는 문제라기 보다는 이해 당사자(청소년, 어른, 사회)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 조정이 요구되는 정책지향적인 동시에 실제적인 장면에서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천지향의 문제이다.

실천적 맥락에서 청소년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을 전제하는 수련활동의 기본철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문제는 본질적으로 실천지향이다.

흔히 인간사는 [그림 1]과 같이 이론, 실천, 정책 등 세가지 문제영역으로 구



[그림 1] 세 영역과 해결의 준거

분된다. 대체로 이론의 영역은 해결의 관건이 논리적 타당성에, 실천의 영역은 실행가능성에 그리고 정책영역은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에 있다.

청소년문제가 이론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천과 정책적 성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소년문제가 원인 → 결과의 단순한 인과관계로는 분석해 낼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문제의 대부분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그들의 합의도출과 즉각적인 실천이 해결의 관건이 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의 광범위한 합의와 즉각적인 실천으로 해결을 모색치 않고 선-이론적 논의, 후-실천의 잘못을 범해왔다. 실행 가능성과 합의가 청소년 문제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에 실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학자나 전문가의 역할보다 강조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청소년문제는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이 이해해야 한다.

실천의 사태는 이론적인 삶의 세계와는 달리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독특성과 가치의 갈등을 특징으로 하는 지극히 상황지향적인 장면이다. 어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즉시 대처해야 하는 일상의 삶의 사태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처하는 데 유일한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마치 테니스 선수가 자기 코트에 공이 넘어왔을 때 공식에 대입하여 공을 쳐 넘길 수 없는 것 처럼, 우선 넘겨 보내고 나중에 따져 보는 것과 같은 상황지향적인 것이다.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유일한 정답(true)을 찾는 이론

의 문제가 아니라 사려깊은 판단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천지향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 같다.

의미는 상황지향적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 처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 영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치 않은가? 이런 시각으로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 볼 때 비로소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다.

청소년문제의 본질이 실천과 정책지향이라는 점은 바로 청소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현장 실천가들의 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상황에 부딪혔을 때, 전문가나 학자들로부터 정답을 받아 적용할 여유가 없다. 신중한 판단과 사려깊은 행동만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다. 실천의 상황에서 현장 지도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최첨단 기기를 갖춘 최신형 비행기의 추락사건, 즉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보다 경제적인 운항을 추구하려는 기장의 판단에 의해 시설이 낙후한 비행장에 몇번의 착륙을 시도하다가 추락한 사건을 상정해 생각해보자.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조종사의 기술이나 조종팀의 지휘 그리고 컴퓨터화된 첨단 기기들의 성능보다도 조종사가 상황에 대처하는 판단능력이 항공기 안전에 훨씬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조종사의 행위는 매순간마다 그가 내리는 판단에 의해 좌우되며, 또 그의 판단은 그가 처한 상황 때문에 겪는 온갖 개인적·직업적 스트레스나 걱정거리 같은 것들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상정한 추락사고는 조종사가 직업적으로 받게 되는 압력이 적어도 간접적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제대로 기기도 갖추지 않은 비행장에 몇번의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했고 사고가 일어날 징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착륙을 시도했다. 만일 그가 아무런 압력을 받고 있지 않았더라면 왜 그렇게 위험스런 착륙을 시도했겠는가? 아마 첫번째 착륙 시도에서 실패한 뒤 기상 등을 고려하여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어야 했을 것이다.

악천후에도 목적지에 착륙해야 한다는 압력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항공사가 요구하는 「경제운항」의 압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종사는 이 경우에 「이윤을 위한 비행」과 「안전을 위한 비행」의 갈등적인 사태에 처하게 된다.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무리한 비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종사의 판단과 상반되는 것을 항공사가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최후의 상황판단과 행동의 수행은 실천의 사태에서 사려깊게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조종사의 몫인 것이다.

청소년문제에 대처하는 현장지도자들에게도 그 실천자로서의 역할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조종사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사려깊은 판단과 행동이 요구되는 것이다. 청소년 지도의 문제는 어떤 정형화된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론가나 학자들이 실천의 현장지도자들에게 그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방안을 제공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지도자들 또한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급한 실천의 문제인 것이다. 실천의 최전선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제외하고서 실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지나친 과장은 아닐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은 수련활동의 의미와 그 적용에 관한 기본틀(안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 틀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창의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실천의 장면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수련활동을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하고 수정하는 것은 당연히 현장지도자들의 일이 되어야만 한다.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는 일은 하나의 정답을 발견해 내는 과학적인 활동이라기 보다는 그들에게 의미있는 삶을 안내해 주거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이다.

◎ 수련활동의 방법론

흔히 수련활동을 지도하는 데에는 실습, 답사, 견학이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경험적 방법으로부터 강연이나 강좌 또는 토론과 같이 추상적이고 전달적인 방법까지 다양한 지도기법이 사용된다.

수련활동지도를 위해서 전성연(1983)이 제시한 청소년 교육기법의 분류모형 [그림 2]은 지도하는 활동의 목적과 여러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 준다.

이 모형에 의하면, 「전달-수용적 방법」은 흔히 지적인 학습을 요하는 경우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정보를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에서 보다 많이 강조되는 「참여-탐구적 방법」은 상호작용의 역동적 맥락이 중시되며 「전달-수용적 방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정의적인 특징을 갖는 「수련-체득적 방법」은 일종의 생활훈련식 방법으로 집단활동을 통해서 인간관계 기술, 리더쉽과 멤버쉽, 가치와 창조의 순종, 자치능력의 함양 등 사회적 정의적 능력확대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다.

추상적 (지적)	←————→	구체적 (정의적)
전달 — 수용적	참여 — 탐구적	수련 — 체득적
- 독서 - 강연 - 강의 - 시청각매체 이용	- 토의 · 대화 - 토론 · 세미나 - 회의 - 버즈분단세미나 - 역할연기 - 실험 · 조사 - 표현활동	- 실습 - 답사 · 견학 - 야영수련회 - 봉사활동 - 행군 · 행진 - 훈련

상호작용의 인식론과 방법을 특히 강조하면서 본 프로그램은 수련활동의 일반적인 지도기법으로 다음의 10개의 형태를 제시한다.

- 현지답사
- 워크샷
- 구안법

위 10개 지도기법에 대해 각각의 특징과 준비 그리고 진행절차를 살펴보자.

○ 강의(Lecture)

○ 특징 :

강의는 짧은 시간내에 많은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참여자들이 수동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약점이 있다. 강사는 참여자들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결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고, 말의 속도와 고저를 적절히 구사하여 참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강사는 강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참여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 사전준비 :

- 지도자는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에 알맞는 강사를 선정한다.
- 강사에게 집단의 욕구와 흥미, 시간제한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진행절차 :

- 강사는 주제를 소개하면서 참여자들의 관심을 모은다.
- 준비된 내용의 진행순서에 따라 정해진 시간동안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 강의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갖는다.
- 강사는 중요점을 강조하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강의를 마무리 짓는다.

○ 강연식 공개토론(Seminar)

○ 특징 :

주제나 의제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를 가진 몇몇 연사들이 자기의 의견이나 준비한 내용을 발표한다. 청중은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 질문을 하고, 발표자는 그것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시키며 토의에 청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발표자 중에서 좌장을 선정한다. 좌장은 주제를 제시하고 강사를 소개하며 논의를 명확히 해주고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 토론을 주재한다.

○ 사전준비 :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4~5명의 발표자를 선정한다.
- 발표자 중에서 사회자를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좌장은 참가자들에게 강연의 진행절차를 설명한다.
- 좌장은 논의 주제를 설명하고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들은 준비된 내용을 발표하고 좌장은 발표자들의 내용이 적절히 연결되도록 사이사이 발언을 한다.
- 발표가 끝나면 좌장은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질의와 응답 이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좌장이 논의된 주제의 핵심과 결론을 요약한다.

○ 시청각(Audio-Visual)

○ 특징 :

시청각교육은 눈이나 귀를 통해 전달되는 시청각자료(VTR, 슬라이드, 차트, 모형 등)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참여자들은 언어라는 추상적 전달매체 이외에 구체적 경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접함으로써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된다. 자료는 정보전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해야 한다. 단순히 참여자의 흥미를 유발한다고 관련없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활동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필요한 정보를 선정한다.
- 참고자료를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를 선택한다.
 - 청 각 : 녹음테이프, 음반 등
 - 시 각 : 흑판, 차트, 도표, 실물 및 모형, 환등기 등
 - 시청각 : TV, VTR, 슬라이드 등
- 발표자를 미리 선정한다.
- 장비를 설치하고 자료를 미리 검토한다.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주제와 발표자를 소개한다.
- 발표자는 시청각자료를 소개하고, 주의해서 볼 점을 지적한다.

- 발표가 끝나면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논의 주제를 요약하고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 게시 및 전시(Demonstration)

○ 특징 :

게시 및 전시는 참여자들의 학습욕구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하며 요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시장소는 참여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하고, 전시내용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이후 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한다.

○ 사전준비 :

- 전시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한다.
- 시각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실물이나 모형·그림 등의 자료를 구한다.

○ 진행절차 :

- 전시의 목적에 따라 자료를 전시(혹은 게시)한다.
- 참여자들에게 전시의 목적과 전시물을 볼 때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린 후 전시물을 관람하도록 한다.
- 관람후에는 참여자들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전시나 게시에 대해 평가하도록 한다.

○ 토론(Debate)

○ 특징 :

토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이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가는 것이다. 참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타인의 의견을 주의깊게 들으면서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한다. 토론에서는 참여자가 모두 참여하여 여러가지 생각과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태도를 익히게 할 수 있지만, 참여자들이 주제에 대한 사전경험과 지식이 있어야하고, 너무 인원이 많으면 원활하게 토론이 진행될 수 없고 주제에서 자주 이탈되는 단점이 있다.

○ 사전준비 :

- 주제를 참여자들에게 알려주고 자료를 제공한다.
- 주제 발표할 사람을 선정한다.

- 의장을 선출한다.
- 진행절차 :
 - 의장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토의목적과 진행방법 등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모임을 시작한다.
 - 의제를 발표하게 한다.
 - 주제에 관하여 참여자 전원이 토의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 한사람이 너무 오래 이야기하거나, 반대로 이야기하지 않는 방관자나 소외자가 없도록 참여자들을 통제한다.
 - 토의가 의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 의견이나 제안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유도한다.
 - 문제의 처리방법, 실천방법들이 제시되었다면 이후의 실천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의욕을 고취시킨다.
 - 의장은 토론의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점을 강조하면서 모임을 종결한다.

○ 분임토의(Group Discussion)

○ 특징 :

소규모의 공개토론으로 모든 구성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 집단을 3~8명의 소집단을 편성하여 각 집단별로 과제를 맡겨 토론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전체집단에 발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분임토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를 완전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짧은시간 동안 모든 참여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여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임토의는 장난으로 흐르기 쉬우며 토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넉넉한 토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 사전준비 :

- 다른 활동방법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도자는 논의될 주제를 명확히 하고 질문을 준비한다.

○ 진행절차 :

- 토의 목적과 분임토의에 대해 참가자들에게 설명하며, 분임토의가 시작되면 분임토의 집단으로 모이도록 한다.
- 각 분임집단은 사회자와 서기를 선출하도록 한다.
- 토론의 주제를 소개하고 참여자들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각 분임의 서기는 토론의 내용을 기록한다.
- 분임의 수가 적으면 모든 분임이 전체 앞에서 토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고, 그 수가 많으면 원하는 분임만 발표하도록 한다.
- 지도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서 모임을 마무리 짓는다.

○ 역할연기(Role Play)

○ 특징 :

역할연기 및 극화는 집단구성원들 자신이 설정된 구체적 상황이나 희곡대본에 따라 정해진 역할을 실연해 보는 것이다. 연기자는 자신이 맡은 배역이나 역할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함으로써 그 배역이나 역할의 의무나 느낌을 알 수 있게 된다. 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감정과 태도를 표현할 수 있게 되어 개방적이 되고 참여를 즐기게 된다. 극화는 기존의 희곡대본을 사용하거나 참여자들이 짠 촌극에 따라 배역을 맡고 연기를 하지만, 역할 연기는 특정 상황이 기술되면 그 상황에 맞게 연기자들이 연기를 해낸다.

○ 사전준비 :

-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희곡 대본을 선정한다.
- (극화일 경우) 배역을 선정하고 대본을 나눠주어 대본에 따라 연습을 하도록 한다.

○ 진행절차 :

- 지도자는 상황과 인물에 대해 간단히 묘사한다.
- (역할연기일 경우)지도자는 설정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연기자를 선출한 다음 역할과 대사를 스스로 구성해 보도록 한다.
- 극을 상연한다.
- 참여자들은 극을 본 다음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 지도자는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기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관찰·현지답사(Field Trip)

○ 특징 :

관찰과 현지답사는 목표는 서로 다르지만 활동진행 절차는 유사하다. 이러한

활동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므로 참여자들의 참여의욕을 높여주어야 성공적으로 활동을 이끌 수 있다. 관찰과 현지답사 전에 목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방문 후에는 경험을 정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 사전준비 :

-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 관찰대상 기관으로부터 방문 허가를 받는다.
-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숙지한다.
- 관찰해야 할 점과 배경지식에 대해 알아둔다.

○ 진행절차 :

- 방문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지도자는 관찰대상 기관에서 요구하는 절차나 주의점 등을 참여자들에게 알린다.
- 관찰이나 현지답사를 실시한다.
- 방문경험을 논의하고 방문을 마친다.

○ 워크샵(Workshop)

○ 특징 :

워크샵은 프로그램이나 특정주제(예 : 신문만들기)의 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활동을 해보도록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하위집단별로 모여 전과정의 일부분을 맡아 수행한다. 활동이 끝나면 하위집단별로 각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 워크샵은 집단이 작으므로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고 자유로운 형태의 활동이므로 참여자들의 긴장이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사전준비 :

- 참여자들이 참여할 다양한 주제 영역을 선택한다. 참여자들이 여러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둔다.
- 교재와 준비물을 분배한다.
- 완성된 작품을 예시로 보여준다.

○ 진행절차 :

- 참여자들이 원하는 워크샵 내용이나 과정을 선택하도록 한다.
- 선택한 워크샵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 워크샵에 참여해

보도록 한다. 여러 워크샷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간제한을 두고 신호에 따라 다음 워크샷으로 옮겨가도록 한다.

- 워크샷이 끝나면 전체가 모여서 경험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구안법 (Project Method)

○ 특징 :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과제를 선택, 계획,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 과제 내용을 익히게 된다. 일종의 실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실습과 다른 점은 실습기간 동안 할 일을 참여자들이 자치적으로 선택하고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안법에서 수행되는 과제는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사전준비 :

- 과제를 선택한다. 과제의 선택은 지도자가 임의로 선택하거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거나, 지도자가 몇가지 과제목록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이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 진행절차 :

- 과제 수행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과제의 개요, 세부일정
 - 과제에 필요한 내용, 설비
 - 과제 수행 순서
 - 과제 진척도 기록방법
 - 평가방법과 평가시기
- 과제를 수행한다.
- 과제를 평가한다.

위에서 제시한 10개의 수련활동 방법은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수련활동 지도자는 이 방법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청소년 문제는 원인→결과와 환원주의적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인간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단일한 정형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인간(청소년)은 목적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획을 구상하고 문화를 만들며, 가치를 가지며 인간의 행위는 여러가지 계획, 가치, 목적들에 의해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에게 의미로운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행동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 이외의 대상들과 구분이 된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특징은 인간을 부분의 합으로써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적인 전체로 이해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실천지향의 청소년문제는 사실(facts)을 발견해 내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의미(meaning)를 만들어 내는 예술적 행위의 삶이라는 표현이 보다 적절하다. 의미는 상황지향이며 상황은 주체와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바로 청소년문제는 어른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해되어야 한다. 수련활동 속의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다.

□ 우리노래 익히기활동의 구성

우리노래 익히기활동은 청소년들이 우리노래를 바로 알고 흥미롭게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노래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노래를 익히고, 스스로 우리노래의 의미와 훌륭함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 스스로 우리노래가 지닌 의미와 전통을 알고 친숙해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연관이 있으며 순차적으로 심화되는 5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인식과정(우리노래 알기)
2. 이해과정(우리노래 이해하기)
3. 탐색과정(우리노래 의미찾기)
4. 실행과정(우리노래 부르기)
5. 평가과정(우리노래 새로습찾기)

위에서 열거한 과정으로 구성된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보다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각 과정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독립된 순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활동을 선택하여 실행해도 우리노래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5개의 과정들은 대체로 주제의 논리와 난이도에 따른 단계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 과정은 ① 활동과정 ② 활동내용 ③ 유의사항 ④ 참고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 ▷ 활동과정은 각 과정의 개관과 주요활동을 요약한 내용이다.
- ▷ 활동내용은 각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위활동들로서, 일반적으로 각 과정은 4~5개의 단위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단위활동들은 각 활동의 과정과 지도요령, 활동방법, 도움활동, 도움자료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 ▷ 활동방법은 각 단위활동을 실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 강의, 공개토론, 시청각, 게시 및 전시, 토론, 분임토의, 역할연기, 현지답사, 워크샾, 구안법 중에서 적합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 도움활동은 ‘노통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켜 실제로 어떻게 활동이 전개되는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단위활동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내용이다.
- ▷ 도움자료는 각 단위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유의사항에는 각 과정의 진행 목적과 내용, 주의사항 등이 진술되어 있다.
- ▷ 참고에는 각 과정의 진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과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상상과 주변의 많은 자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마음껏 응용할 수 있는 좋은 뒷받침이다. 현장에서 충분히 응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우리노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노래 익히기 활동프로그램의 구성

과 정	단 위 활 동	활 동 내 용
인식과정 : 우리노래 알기	— 나의 노래 나의 추억 — 우리노래 인기순위 — 노래의 갈래를 따라 — 우리가 아는 우리노래	우리의 노래가 자신의 삶속에 내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노래의 종류와 특징을 안다.
이해과정 : 우리노래 이해하기	— 우리가락 덩더쿵 — 숨은 노래가사 맞추기 — 옛말 속뜻 찾기 — 명창의 삶 속으로	다양한 삶을 표현한 우리노래의 높낮이와 빠르기를 느끼고 노래가사 속에 있는 삶과 정서를 이해한다.
탐색과정 : 우리노래 의미찾기	— 노래따라 가락따라 — 그곳에는 그곳의 노래가 — 슬픔은 진양조로 웃음은 휘모리로 — 명창축보 만들기	기본적인 우리노래의 장단과 지역적인 특색을 알고, 음악적 구조를 파악한다.
실행과정 : 우리노래 부르기	— 민요를 메기며 받으며 — 자연과 벗하여 시조를 — 나도 판소리 한 대목쯤은 — 판소리 명창 선발대회	다양한 종류의 우리노래를 부르고 판소리판을 벌여 직접 소리를 함으로써 우리노래의 정서와 재미를 체험한다.
평가과정 : 우리노래 새모습찾기	— 내가 만든 우리노래집 — 우리시에 우리가락을 — 우리노래 공연장을 찾아서 — 우리노래 총체극 올리기	우리노래가 지닌 아름다움을 청소년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깨닫고 새로운 우리노래를 창조하려는 동기를 갖는다.

□ 노통이의 우리노래 익히기

1. 우리노래 알기

노통이는 오늘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있는 노래가사집을 뒤지다가 이상한 노래를 발견합니다. “오봉산 꼭대기 에루아 돌배나무는 ...”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소리칩니다. 웬 구식?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도 노래방에 오시나보다고 대꾸했지만 마음이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란 자기 취향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달입니다. 더구나 가사집 한 쪽 끝에 겨우 걸쳐있는 우리 민요를 생각하면 웬지 서글픈 마음까지 듭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걸까? 그 때 노통이는 돌아간 할머니가 자주 들으시던 ‘배뱅이 꽃’이 생각납니다.

2. 우리노래 이해하기

거실에 나간 노통이는 지금은 잘 듣지 않는 레코드판이 쌓여 있는 문갑을 열고 ‘배뱅이 꽃’을 찾습니다. 판을 찾아 들어봅니다. 잡음이 조금씩 들리면서 사설이 나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루에도 수번씩 이 판을 들어놓고 듣고 또 들으시며 눈물을 흘리시던 할머니 모습이 그려집니다. 왜 그렇게 우셨을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불쌍한 배뱅이...” 고음이지만 막힘이 없고 힘이 있는 목소리를 들으시며 왜 우셨을까? 차분히 앉아서 듣던 노통이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찢어질 듯한 목소리 속에서 우렁차게 솟구쳐오르는 음성, 그러다가 다시 처절한 곡성이 되어 숨 넘기는 듯한 가락에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 온 몸의 체증과 힘겨움 그리고 답답했던 아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통이의 눈시울은 빨갛게 변하고 있습니다.

3. 우리노래 의미찾기

아!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데 어떤 요소들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 우리노래를 말할 때면 ‘한’의 문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노래에 신명이 가득하다고도 말합니다. 과연 우리노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나는 우리노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왜 우리 노래를 들으며 공상맞다고 외면할까? 참모습은 어디서부터 보아야 하는가?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점점 목이 타입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노통이는 언젠가 가만히 앉아서 긴 사설을 낭랑하게 엮어내던 국악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렇다! 우리노래는 우리의 삶이다. 다양한 우리의 정서가 바로 우리노래의 모습일 것이다.’ 노통이는 어떤 것이 우리노래인지 궁금합니다.

4. 우리노래 부르기

그래, 직접 불러보는거야! 그래야 느낄 수 있겠지. 그런데 한 번도 우리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 걱정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다행히 식구들이 없습니다. 노통이는 아는 노래를 생각합니다.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는 부려서 무엇하나 인생일장춘몽인데...” 그렇게 부르다가 노래를 그칩니다. 목청이 이 맛이 아닙니다. 다시 국악 레코드판을 찾아봅니다. 그러자 ‘경기민요’라고 써있는 레코드판 표지가 보입니다. 판을 걸고 음량을 높이자 노래가 흐릅니다.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로 시작되는 ‘노들강변’이라는 노래입니다. 노통이는 따라합니다. 레코드 소리에 파묻힌 노통이의 목소리는 흥이 되어 흘러갑니다. 잠시 후 노통이 어깨가 들썩이며 손까지 올라갑니다. 한바탕 노래를 부르고 난 후, 노통이는 긴 여운을 느낍니다.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노래의 맛과 멋을 조금은 느낀 기분입니다.

5. 우리노래 새모습찾기

잠시 가만히 앉아있던 노통이는 무엇인가 시원하지 못한 감정을 가집니다. 요즘 유행하는 랩음악이나 헤비메탈 사운드는 들을 때도 그렇고 직접 불러도 체중이 확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노래는 끝난 것 같지도 않고 밋밋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우리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해서 그럴까? 아니면 우리노래의 특징이 이런 걸까? 노통이는 우리노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노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궁상각치우 정도의 음계를 상식으로 안다해도 그것의 구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 적이 있나? 판소리의 고저음만 판단했지 어떤 대목이 의미가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나? 이런 의문과 함께 자꾸 부끄러운 생각이 앞섭니다. 나는 얼마나 우리노래를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자 정말 우리노래에 담긴 뜻과 가락을 알아보고 얼마나 나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지 판단해 보려는 생각이 듭니다. 노통이는 가슴 한구석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노래에 대한 많은 상념을 해결하기 위해 문을 나섭니다.

우리노래 알기



나의 노래 나의 추억
우리노래 인기순위
노래의 갈래를 따라
우리가 아는 우리노래

1. 활동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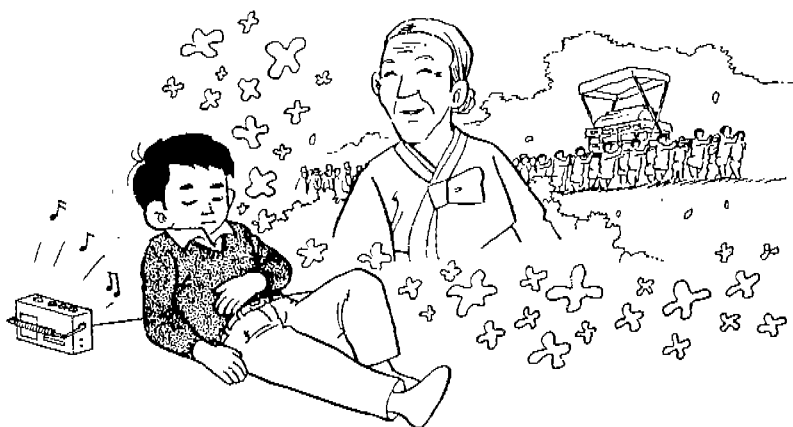
개 요	우리의 노래가 자신의 삶속에 내재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우리노래의 종류와 특징을 안다.			
활 동 과 정	기억에 있는 우리의 가락을 마음에서 떠올리고 그 가락과 관련된 추억을 회상한다.	같은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간의 공통점과 그 노래가 지닌 느낌을 공유한다.	알고 있는 우리 노래를 느낀대로 구분해 보고 각 분류의 특징을 파악하여 발표한다.	우리노래의 종류와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안다.

2. 활동내용

활동 1 나의 노래 나의 추억

- 활동내용**
- ▷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노래가락을 떠올린다.
 - ▷ 떠올린 노래가락을 읊조리면서 관련된 추억과 경험을 기억한다.
 - ▷ 그 추억과 경험이 현재 자신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한다.
 - ▷ 자신이 기억한 노래와 추억, 그리고 현재 자기자신 사이에 있는 관계성을 찾는다.

활동방법 시청각 ☒ 토론 강의 구안법 ☒ 역할연기



노통이의 도움활동

겨울동안 사라졌던 나비가 날아다니기 시작한지 며칠되지 않은 봄 날 오후. 노래를 사랑하는 노통이는 라디오를 들으며 낮잠에 빠져 있습니다. 꿈결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청송맞은 노래 가락과 함께 몇해 전 이맘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를 무척이나 사랑해주시고 귀여워해주시던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노래소리가 점점 또렷히 들리고 하얀 색의 흐릿한 모습이 눈 앞에 아른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볼 수 없지만 몇해 전까지만 해도 고향 마을에서 언제나 볼 수 있었던 파란 하늘과 푸른 독이 보이고, 그 위로 흐르는 하얀색의 사람들 물결이 희미하게 보이다가 점점 빛을 더합니다. 앞에 선 사람 중에 큰아버지와 아버지 모습이 보이고, 저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뒤로 색색으로 치장된 상여를 맨 사람들이 따릅니다. 노래가락의 무게는 더 무거워지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더욱 무겁게 보입니다. 앞선 사람이 무어라고 노래하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따라하던 상여 길 모습입니다. 이제 도시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다시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주름 많은 할머니의 인자하신 얼굴과 파란 하늘, 그리운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 둘 씩 떠오를 때, 갑자기 길가 자동차에서 들리는 “생선 사세요”라는 커다란 스피커 소리가 저의 단꿈을 앗아갑니다.

□ 소리꾼의 가슴앓이

관소리를 알기 이전의 나는 열렬한 오페라 팬이었고 이탈리아 민요와 한국 가곡을 부르고 싶어 환장하던 열치기 성악 지망생이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카루소나 스테파노, 질리, 마리오 란자의 숭배자였고, ‘남 몰래 흐르는 눈물’이나 ‘축배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매일 새벽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엉터리 발성 연습을 하곤 했다. 또 대학교 1학년 시절, 지금의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있던 시민회관에서 프랑코 코렐리 독창회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밀려와서 입장할 수 없게 되자 2층 벽을 타고 올라가 객석 맨 뒷자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정도로 못말리는 성악광이었다.

그 덕분에 친구들의 모임이나 서클의 행사에는 어김없이 불려나가 ‘물망초’나 ‘먼 산타루치아’ 같은 이탈리아 민요와 ‘수선화’, ‘가고파’와 같은 가곡을 엉터리로 부르며 박수를 받기도 했던 낮 뜨거운 추억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던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관소리를 처음 듣고서 왜 그리도 깊이 빠져 들었는지 지금도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나의 음악 취향은 그뒤로 180도 대전환을 했다. 관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은 감동이라기보다는 충격이었다. 관소리는 그때까지 내가 알고 경험했던 음악세계와는 너무 달랐다. 그 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깊이와 색채를 가진 또 다른 음악세계가 있었다. 서양성악의 문법과는 너무도 다른 음의 문법과 발성법, 그리고 표현기법이 있었다. 그 세계는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너무도 낯설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까지 험난한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관소리를 이해하기 전에 훌쩍 반해 버렸다. 그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사랑했던 여인에 대해 왜 그 여자에게 첫눈에 반했는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기가 난감한 것처럼 말이다. 물론 눈이 어쨌든지, 목소리가 어쨌든지, 옷차림이 어쨌든지 하며 설명하려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반한다는 것은 그런 모든 이유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강렬한 느낌으로 와 닿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리라. 관소리 역

시 그런 총체적인 느낌으로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레임으로 사정없이 관소리에 빠져버렸다. 그 이후로 나의 가슴속에는 송만갑, 임방울, 정정열과 같은 명창들이 별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옥중가’나 ‘사랑가’, ‘가난타령’과 같은 선율들이 내 온 몸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자료 : 김명곤, 월간음악, 1994. 2.

활동 2 우리노래 인기순위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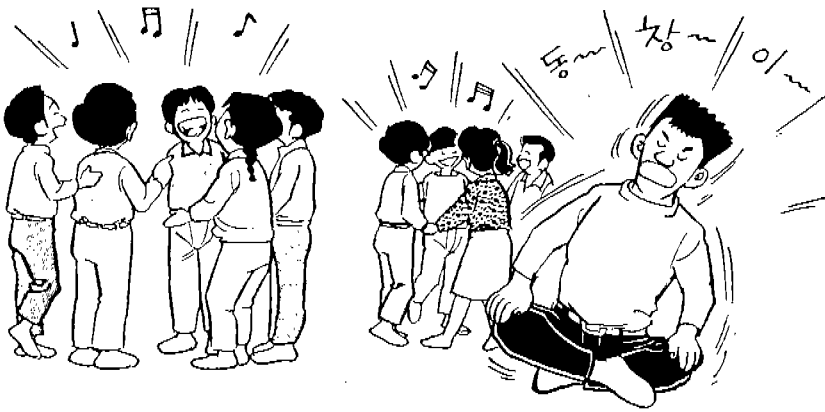
- ▷ 사람수에 맞는 적당한 공간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르면서 걷다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다.
- ▷ 많은 사람이 모인 모둠의 순서대로 노래제목을 발표하고, 이 순서에 따라 우리노래의 인기순위를 정한다.
- ▷ 모둠의 구성원들은 각각 자신들의 노래를 부른 다음, 그 노래의 특징과 구성원들이 지닌 공통점을 찾는 토의를 하고 발표한다.

활동방법

___ 시청각 ___ 현지답사 ☒ 워크샷 ☒ 분임토의

노통이의 도움활동

저는 흥겨운 노래를 좋아합니다. 느리거나 무거운 노래는 마치 늪에 빠진 기분을 자아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가벼운 성격은 아닌데도 말이에요. 물론 저는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로 시작하는 진도아리랑을 부릅니다. 민재도 같은 부류의 “날쫓 보소 날쫓 보소”로 시작하는 밀양아리랑을 부릅니다. 같은 아리랑이라 저도 민재를 따라 “동지선달 꽃본 듯이 날쫓 보소”를 따라 부르자, 얼굴에 웃음을 가득 담은 성표가 우리에게 어깨를 걸며 좌우로 몸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엄청난 목소리가 큰 동호가 합세하자 몇명의 친구들이 더 모입니다. 한편에서는 준이가 두손을 뒤로 하고 천천히 걸으며 “새야 새



야 파랑새야”를 부르자 영길이와 영섭이가 합세하여 둥그런 원을 그리며 합창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석이가 땅바닥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윗몸을 옆으로 흔들거리며 어디서 배웠는지도 모를 이상한 노래를 부릅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지--진---다----” 그러자 이상한 눈초리로 다가간 친구들도 병석이처럼 점잖은 표정으로 윗몸을 흔들거리며 자리에 앉습니다. 처음에는 노래가 많이 등장하여 정신없던 놀이판이 잠시 후에 몇몇 모듬으로 나누어졌는데, 후렴구가 있고 각자 돌아가며 가사를 넣을 수 있는 밀양아리랑에 가장 많은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 뒤를 이어 ‘새야 새야 파랑새야’가 2위를 차지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처음 부르던 진도아리랑은 고향이 전라도 지역인 충호와 성수가 불러 4위를 차지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명이 모여 강세를 보이던 병석이 모듬은 끝내 병석이 혼자 남아 꼴찌를 차지하지만, 병석이는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뭔가 긍지를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활동 3 노래의 갈래를 따라

활동내용

- ▷ 알고 있는 우리노래의 제목을 적은 카드를 모아 자연스럽게 구분한다.
- ▷ 유사한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끼리 모듬을 만든다.
- ▷ 그 분야의 노래가 지닌 장점을 찾아내어 상대모듬에게 자신들의 노래가 지닌 장점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모의한다.
- ▷ 각 모듬은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쟁을 통해 우리노래의 종류와 특징을 인지한다.

활동방법

☐ 강의	☒ 구안법	☒ 토론	☒ 분임토의
-----------------------------	---	--	--

노통이의

도움활동

제가 알고 있는 노래는 대부분 민요나 판소리입니다. 그래도 제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매우 드문 편이죠. 부르기도 쉽고,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노래라 혼자 부르거나 친구들과 같이 부르기도 편하다 보니 민요와 판소리만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카드에 제가 아는 우리노래의 제목을 적어 봅니다. 물론, 아리랑을 처음 적고, 도라지 타령, 한오백년, 널리리야, 그리고 판소리에는 흥보가, 심청가, 춘향가를 적었지만, 서편제가 판소리 제목인지 아닌지 잘 몰라 적지 않습니다. 아! 민요 중에 ‘쾌지나 칭칭 나네’도 생각나 적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적었다고 생각하니 어깨가 으쓱해지네요. 병석이는 이상하게 긴 제목을 적습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권주가’, ‘어부사’, ‘태평가’와 같이 생소한 제목들입니다. 비슷한 제목을 적은 사람끼리 모여보니, 저와 비슷한 제목을 쓴 친구들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저와 같은 모듬이 된 친구들은 많이 알려지고 잘 불리는 노래가 좋은 노래이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삶이 담겨져 있는 가사와 곡이 참다운 노래라는 주장으로 상대모듬을 압도시킬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병석이 모듬은 옛 선비들이 지닌 기풍을 느낄 수 있고 예술적인 수준이 높은 노래가 진정한 우리노래라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병석이는 단지 글로 외우기만 했던



시조를 구수한 목소리와 함께 노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창--- 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지-- 진---다----” 단 10초면 입을 시조를 자그마치 몇분간에 걸쳐 힘 들여 부르는 모습을 보던 모든 친구들은 그저 부러운듯 바라 보았을 뿐입니다. 어느 음악책을 보니 우리음악은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난 뭔가를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사물을 극단적인 두 분야로 나누어 놓고 보면 어느 하나를 어느 쪽에 넣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나 병석이가 좋아하는 노래는 모두 독특한 장점과 특징을 지니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민족은 어지간히도 노래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지금 저와 친구들이 아는 노래만 하더라도 몇십가지 이상은 되는 걸 보면 말이에요. 아마도 우리와 같은 넓이의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노래의 수가 많기로는 우리나라가 으뜸이겠지요.

□ 국악의 큰 나눔, 정악과 민속악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국악은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눌 수 있다. 정악은 양반들이 즐겨하던 음악이고 민속악은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하던 음악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서양음악에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이 있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정악과 민속악은 같은 우리음악이지만 그 맛과 멋이 다르다. 정악이 깊고 넓은 강물이라면 민속악은 속이 흰히 들여다 보이는 맑고 깨끗한 시냇물이라고 할 수 있고, 정악의 흐름이 잔잔하다면 민속악은 힘차고 변화무쌍하다고 느낄 수 있다.

◎ 정악

참으로 평화로운 음악인 정악에는 궁중에서 제사지낼 때 하는 ‘제례악’과 양반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하던 풍류 음악과 시조, 가곡 같은 ‘정가’, 임금이나 고관들이 행차할 때 하던 ‘고취악’ 등이 있다.

◎ 민속악

우리의 민속악은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정직한 음악이다. 민속악에는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었던 기쁘고 슬픈, 혹은 한스럽고 힘든 일들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민속악에는 성악곡으로 판소리와 단가가 있고 선소리, 잡가, 민요도 있다. 기악곡으로는 산조와 시나위 그리고 농악이 있다. 또 종교음악으로 범패와 무속 음악이 있다.
자료 : 이성재, 1994.

활동 4 우리가 아는 우리노래

활동내용

- ▷ 각자 우리노래의 종류를 선택하여 그 노래의 특징을 발표한다.
- ▷ 비슷한 노래를 선택한 두 모둠으로 나누고 자신들이 발표한 노래와 관련된 용어를 카드에 적는다.
- ▷ 노래와 관련된 용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를 선정하여 상대방 모둠이 제시하는 용어를 자기 모둠에게 설명하고 맞춘다.

▷ 이긴 모둠을 결정하고 용어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에게는 적당한 상을 준다.

활동방법

___ 게시 및 전시 ___ 워크샷 ___ 토론 ☒ 분임토의



노통이의 도움활동

우리노래의 종류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나름대로 특징을 지닌 가락과 가사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우리나라의 노래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지니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더라구요. 이제는 한발 더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우리노래와 관련된 용어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조용하고 무게있는 노래를 좋아하는 병석이와 몇몇 친구들은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가사나 시조와 관련된 용어를 적어 우리에게 주었고, 대표로는 물론 병석이가 나섭니다. 저와 친구들이 알고 있는 용어는 몇개 되지 않지만 더욱 생소한 용어인 ‘진작’을 문제로 냈더니, 병석이는 자신있다는 듯이 “가곡의 원류로 고려시대의 노래는?”하고 자기모듬에게 되물습니다. 그랬더니 영길이가 용감하게 ‘탄대엽’이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그 답은 ‘진작’이었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속된 어부사, 사미인곡, 중허리시조 등의 어렵다고 생각한 문제를 잘 맞춥니다. 병석이 또

둘이 이론에 강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둠의 일토당토않은 질문과 대답에서 확인되고 맙니다. 민요나 판소리는 우리가 그저 부르는데 익숙할 뿐이지 이론적으로 정확한 전문용어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알 수 있던 것 중 하나는 판소리 중 ‘적벽가’란 삼국지에 나오는 한 대목으로 적벽강 싸움에서 크게 패배한 조조의 독숨을 관우가 살려주는 대목의 판소리라는 것입니다.

3. 유의사항

- ◎ 우리노래 알기과정은 우리노래의 종류와 특징을 청소년들이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 ◎ 각 활동은 우리노래에 대한 청소년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자발적인 관심에 기초하여 흥미성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지닌다.
- ◎ 각 활동은 참가인원이나 장소 등의 여건에 맞추어 다양하게 응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4. 참 고

□ 우리노래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만큼이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음악도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북으로는 지금의 만주를 확보하고 남으로는 한반도를 중흥으로 치달던 고대 한민족의 문화는 유구하고도 빼어난 것이었다. 이 문화 속에서 음악은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고대의 음악은 악본이 전하지 않고 곡조마저 찾을 길 없으나 멀리 중국에까지 유출되어 전해진 것으로 보아 우리겨레의 음악 수준이나, 음악을 사랑한 점 등을 알 수 있을 정도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가 비로소 역사 연대에 들어선 삼국시대부터는 역사서를 통해 당시의 음악을 이

해할 수 있다.

◎ 고대음악

제천·사신의 종교적 의식과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어느 예술 보다도 한층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숭상되었다. “동이(東夷)의 고속(古俗)이 가무(歌舞)를 즐긴다”는 중국의 문헌으로 미루어 보아 원시적이거나 비교적 높은 경지의 가무와 음곡이 성행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삼국시대음악

고구려의 고도 환도성의 무용총 현실 좌벽 천장에 거문고가 그려져 있어 주목을 끈다. 백제는 가악으로 선운산, 무등산, 정읍, 지리산 등이 있고, 악기로는 고, 각, 공후, 쟁, 지, 적 등이 있다. 특히 최초의 가면극인 산대도감극을 불교와 더불어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며 ‘기악(伎樂)’으로 일본에 전파했다. 신라에서는 국가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관아를 설치하여 악사를 양성하고 악곡을 이습하였는데 이것이 음성서이다. 풍월주로부터 일어나 원화, 화랑, 국선 또는 ‘화’ 혹은 ‘낭’이라고도 불린 화랑은 가악의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 고려시대음악

고려시대에는 태조와 혜종을 거쳐 광종 때부터 문화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되었고 가악이 숭상되었다. 불교행사인 연등회, 팔관회때마다 성대한 음악을 즐겼으며 송(宋)나라에서 아악이 전래된 고려 중엽에는 그 절정을 이루었다.

◎ 조선시대음악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음악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정도전에 의하여 새로운 작가(作歌)를 보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의 음악 기초는 정도전이 세운 것이나 다름없다. 태종 2년, 예조와 의례상 정소가 협의하여 전래 음악 중에서 통속적이지 않은 것들을 골라 수정을 가한 후 조화연향악으로 삼고 민간에도 퍼지게 했다. 세종은 관습도감과 악기도감을 만들어 음악의 체계를 완비하였고 악리학자 박연의 도움으로 아악의 성률을 바로잡아 궁중음악을 혁신했으며 많은 작곡을 하였다. 또한 동양 음악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인 정간보가 창안되었다. 성종때는 장악원 청사를 지었고 유자

광, 성현 등이 주악에 기초하고 당시의 의궤와 악보를 교정, 증보한 음악이론서로 악학궤범이 편찬되었다. 조선시대를 통해 이 악학궤범보다 더 정확하고 상세한 음악과 무용을 설명한 책자는 없으며 한국음악의 바탕이자 기틀이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형식적인 궁중음악이 퇴조하는 반면, 평민계급의 음악인 가곡이나 가사, 시조, 잡가, 판소리 등이 현저하게 대두되었다.

자료 : 이성재, 1994.

□ 우리노래의 종류와 특징

우리음악은 정악과 민속악이라는 뼈대를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정악은 궁중에서 사용되었던 음악이나 상류 지식계급층에 의한 음악을 이르는 말이고, 민속악은 서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서민들의 음악이다. 현재에는 국악창작이 보다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경계가 와해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노래를 이러한 구분법에 의해 살펴보면 정악에 속하는 성악곡이라 할 수 있는 시조, 가사, 가곡을 일컫는 정가가 있고, 민속악으로는 민요, 잡가, 입창, 판소리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 범패라는 불교성악곡을 들 수 있다.

◎ 시조

오늘날 시조는 흔히 문학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 쉬우나 옛날의 시조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숨쉬는 문학이자 노래였다. 이는 시절가(時節歌), 시절단가라고 불리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 임금에 대한 충성심, 사랑하는 님에 대한 그리움, 세월의 무상함 등 세상사의 크고 작은 사연들이 시조라는 형식으로 담겨졌고 그것에 언제부터인가는 가락을 얹어 부르게 되었는데 그것이 시조이다.

◎ 가사

가사는 가사체의 긴 사설을 일정한 장단의 틀에 담은 노래이다. 이는 가곡이나 시조처럼 시조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며 사설이 길고 서사적이다. 또한 고정된 선율에 시조시를 얹어 부르는 가곡이나 시조와는 달리, 가사는 오늘날의 노래처럼 한 선율에 하나의 사설

이 있을 뿐이다. 오늘까지 전해지는 가사는 전부 12곡이다. 조선말 가곡의 명창 하규일이 백구사, 황계사, 죽지사, 춘면곡, 어부사, 길군악, 상사별곡, 권주가 등 8곡을 전했고 같은 시대를 산 임기준이 수양산가, 양양가, 처사가, 매화가 등 4곡을 전했다.

○ 가사의 명반

「한국의 전통음악 제 3 집 ‘한국의 성악」 (이양교/어부사/지구레코드 JCDS-0917)

「전통가곡·가사의 원류」 (이영산홍, 김부용, 조모란, 김연옥/죽지사, 황계사 외/킹레코드 SYNCNCD-0588)

「국악의 향연 제20집, 제21집」 (정경태, 이양교/12가사/중앙일보사)

「열두가사」 (이양교/12가사/지구레코드 JCDS-0273~5)

◎ 가곡

가곡은 정가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높은 노래로 꼽히고 있다. 가곡이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가곡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정식 반주를 곁들여서 시조시를 담아 부르는 노래이다. 시와 음악이 어루어져 느릿느릿 이어지는 가곡은 깊은 평화로움을 만들어 내는 노래이다. 발성이 시조창과 흡사하고 가곡의 노랫말도 평시조이므로 가곡과 시조는 여러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조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대중화된 노래이라면 가곡은 전문가의 노래로 음악의 형식에 있어서도 시조와는 몇가지의 차이점을 보인다.

○ 가곡의 명반

「전통가곡·가사의 원류」 (하규일, 김우정/언락, 편락/킹레코드 SYNCNCD-0588)

「한국의 전통음악 제 3 집 ‘한국의 성악」 (이동규, 김월하, 전효준/삼수대엽, 우락, 편락, 편수대엽/지구레코드 JCDS-0917)

「한국의 전통음악 제 4 집 ‘잊을 수 없는 연주」 (이주환, 김기수/태평가, 남창언락/지구레코드 JCDS-0194)

「국악정악 제 1 집」 (이동규/편락/SKC SKCD-K-0004)

「국악의 향연 제15-19집」 (홍원기, 전효준, 김월하/가곡/중앙일보사)

「한국전통가곡 ‘조순자 여창가곡 전집」 (조순자/가곡)

◎ 민요

민요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온 노래이다. 일을 하면서 일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 중얼중얼 부르던 노래가 민요이고, 여럿이 힘을 모아 일을 할 때 서로 호흡을 맞추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흥겹게 부르던 노래가 민요이다. 함께 일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의식은 서로에게 힘을 주었으며 그 힘은 ‘신명’으로 분출되었으며 고된 일도 거뜰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민요는 일상의 속박을 호소하는 대상이자 자기 표현의 매체였다.

◎ 잡가

잡가란 가곡, 가사, 시조 등이 주로 양반들이 부르던 노래인 것에 반해 서민들 중에서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온 소리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또한 잡가는 앉아서 하는 소리인 까닭에 ‘좌창’(坐唱)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이 길어 ‘긴잡가’라고도 한다. 민요가 서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르는 비전문적인 소리라면 판소리나 잡가는 전문적인 소리꾼들의 소리이다. 잡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의 잡가에는 원래 유산가, 적벽가, 제비가,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평양가, 선유가 등 8곡이 있었으나 후에 4곡의 잡가가 첨가되어 흔히 12잡가라고 부른다.

○ 잡가의 명반

「국악의 향연 제25집, 제26집」 (안비취, 목계월, 이은주/경기잡가/중앙일보사)

「한국의 전통음악 제3집 ‘한국의 성악」 (목계월/유산가/지구레코드 JCDS-0197)

「한국의 전통음악 제4집 ‘잊을 수 없는 연주」 (김정연/초한가/지구레코드 JCDS-0194)

「생활국악대전집 제6집 ‘흥겨운 소리관에서」 (이금미, 조경희/유산가, 바위타령/서울음반 SRCD-1216)

「한국음악선집 제21집 ‘선소리와 잡가」 (황용주, 염창순/휘모리잡가, 서도잡가/지구레코드 JCDS-9311~3)

「오복녀 서도소리 제3집」(오복녀/초한가, 제천/서울음반 SRCD-1176)

◎ 입창(立唱)

입창이란 말 그대로 서서 노래한다는 뜻이다. 방안에 단정히 앉아서 부르는 좌창(坐唱)이 아니라 야외에서 발림춤을 섞어 가면서 흥겹게 노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창, 즉 선소리는 지난 날 서울 지방의 노래패들에 의해서 성창되었는데 특히 담교놀이와 같은 축제 때면 여러 곳에서 여러 소리패들이 기량껏 노래를 해가며 청중들을 즐겁게 해주었다고 한다. 이들이 주로 부른 노래가 산에 얹힌 사설의 노래였기 때문에 이들을 산타령패라고도 하였다.

◎ 관소리

관소리는 ‘어떤 관에서 하는 소리’라는 뜻이다. 옛날에는 굿관, 춤관, 씨름관 등 관놀이를 하였는데 관소리는 그러한 관에서 하는 소리이다. 관소리는 원래 열두마당이었으나 현재 불리우는 관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적벽가, 흥보가, 수궁가 등 다섯마당 뿐이다. 소리를 하는 창자(唱者)와 북을 치는 고수(鼓手) 두 사람이 관소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배역을 맡아서 공연을 하는 것은 창극이라고 한다.

◎ 범패

범패는 불교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노래이다. 때로는 불교음악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범패의 한 종류인 홑소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재에 사용되는 노래만을 지칭한다. 재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열리는 불교예배의식의 하나이다. 타악기의 반주 없이 목탁이나 징, 법고를 사용하지만 반주악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으로 범패만 부르는 승이 있다. 장단의 변화가 많지 않고 음의 높낮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신비한 느낌을 주는 성악곡이다.

○ 불교음악 명반

「범패 ‘국악의 향연 전집」(박송암, 장벽웅/중앙일보사)

「빅터 유성기 원반 시리즈」(하룡남, 김종조, 김주호/서울음반)

「영산회상」(김천홍, 김성진, 정재국, 서한범 외/성음발매3LDP)

「현악영산회상」(국립국악원연주/SKC발매)
 「현악영산회상곡」(오아시스)
 「불교음악1」(박범훈 창작 불교음악/오아시스)
 「불교음악2」(박범훈 창작 불교음악/신라음반)
 「한국의 불교 명상음악선」(김영동/서울음반)

□ 기본적인 국악감상 음반 20선

◎ 판소리

○ 「동편제 판소리」(소리: 송만갑, 송기덕, 이선유, 장관개, 김정문, 박중근/고수: 한성준 외/서울 음반 SOER-069(1LP), SRCE-1064(1CD)/유성기 음반 복각/1913-1935년 원반 녹음)

오늘날에는 동편제가 전승이 끊어지거나 변질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음반을 통해 동편제의 옛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 음반에는 동편제의 대명사격인 명창 송만갑과 그의 아들 송기덕, 동편제의 원형을 끝까지 고수했던 이선유 등의 녹음이 담겨있다.

○ 「박록주: 흥보가, 춘향가, 속영남자전」(고수: 김동준/아세아 레코드 ALC-1781-1788(8MC)/1960년대말-1970년대 중반 녹음)

최고의 여류명창으로 꼽히는 박록주의 장기가 8개의 카세트 테이프에 거의 모두 수록되어 있다.

○ 「임방울: 수궁가」(고수: 김세준/아세아 레코드 ACD-143, 1449(2CD)/1957년 9월 실황 녹음)

너무도 유명한 임방울의 수궁가 공연실황음반이다. 임방울의 현란한 목놀림, 고수의 북가락, 관중의 추임새가 이렇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판소리 실황음반은 없다. 옛부터 귀명창들의 필청 음반으로 유명한 음반이다.

○ 「박봉술: 흥보가, 수궁가」(고수: 김명환/한국브리태니커회사 뿌리깊은나무 판소리전집 중 7LP/1980년경 녹음)

광복 이후의 소리꾼 가운데 정응민과 함께 최고의 명창으로 평가되는 사람이 박봉술이다. 소리꾼으로서의 최악의 조건인 꺾인 목을

가지고 갖가지 소리길을 짜내는 그의 기량이 이 음반에 잘 담겨있다. 명고수 김명환의 북 솜씨도 이 음반의 좋은 감상거리다.

◎ 산조

○ 「가야금 산조의 명인들 1」 (김해선, 심상건, 정남희, 안기옥, 김종기/서울음반SRCD-1101(1CD)/유성기 음반 복각/1920년대 중반-1930년대 말 원반 녹음)

산조는 장고나 북의 장단에 맞추어 가야금, 거문고, 대금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기악독주곡의 한 형태다. 이 음반은 일제 때의 가야금 산조 명인인 김해선, 심상건, 정남희, 안기옥, 김종기의 녹음을 모아 놓은 것이다.

○ 「신쾌동: 거문고산조」 (고수: 김재선/아세아 레코드 ALS-1040(1MC)/1960년경 녹음)

신쾌동은 거문고 산조의 창시자인 백낙준의 수제자로서 거문고 산조 인간문화재로 독보적인 활동을 했다. 백악지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문고는 담담하고 깨끗한 음색을 지닌 남성적인 악기다. 이 음반은 거문고 산조 음반 가운데 가장 명반으로 평가되며 가장 많이 팔린 거문고 산조 음반이다.

○ 「성금연: 가야금산조」 (고수: 김명환/성음 SEL-RS 145 (1LP)/1984년 녹음)

성금연은 광복이후 가야금 산조 연주의 대명사로 통했던 명인이다. 성금연은 이 음반에서 가야금을 마치 자신의 몸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다. 남도, 경기 가락이 적절히 융합되어 듣기 좋다. 특히 중중모리 이후의 경쾌한 연주는 추임새가 절로 나오는 명연이다.

○ 「이생강: 대금산조」 (고수: 이성진/대성음반 DAS-0238 (1LP)/1984년 녹음)

한주환의 수제자인 이생강의 44분 36초짜리 대금산조를 녹음했다. 이 음반은 대금산조 음반 가운데 한주환의 대금산조 음반(성음 제작소, DG가-34)과 함께 가장 명반으로 꼽힌다. 이생강은 방정맞을 정도로 너무 출랑거리며 연주한다는 악평이 있지만, 이제 이생강만한 대금산조 연주자가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민요: 서도소리, 경기소리, 남도소리

○ 「김정연 : 서도소리」 (성음 SEL-100 111, (2LP)/1980. 4. 14)
대동강 물을 먹고 자라야만 함흥냉면처럼 시원한 목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서도소리인데, 남북분단으로 인해 서도소리는 이제 거의 전승이 끊기거나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요즘은 인간문화재인 오복녀 외에는 좀처럼 옛맛을 내지 못한다. 서도소리의 인간문화재였던 김정연이 망향의 한을 이 두장의 음반에 열창으로 토해내고 있다.

○ 「한국고전민요 제 1 집-제 3 집」 (소리 : 목계월, 이운주, 안비취 /한국음반 HC-200054-6(3LP)/1982년 녹음)

마른 잎에 물방울이 구르듯이 재치있는 목계월의 소리, 냉면처럼 시원한 이운주의 소리, 구수한 된장찌개 맛을 내는 안비취의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있다. 한국인이란면 결코 낯설지 않을 만한 ‘아리랑’, ‘박연폭포’, ‘뱃노래’ 등을 담고 있다.

○ 「안숙선 : 남도민요」 (예음문화재단/1992년 녹음)

차세대 판소리를 이끌고 나갈 여류명창의 거두로 안숙선을 꼽는 명창들이 많다. 안숙선은 판소리뿐 아니라 남도민요에도 큰 장기가 있다. 안숙선의 낭랑하고 서슬있는 목청이 듣기 좋다. 반주를 맡은 서용석, 박종선, 한세현, 김영재 등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인들로서 이 음반의 품질을 높여주고 있다. 이 음반은 음질이 좋지 못한 것이 옥의 티다. 남도민요의 대표곡인 ‘육자배기’, ‘홍타령’, ‘화초사거리’ 등을 담고 있다.

◎ 정악 : 성악과 기악

○ 「이주환 : 가사, 가곡 선집」 (지구레코드/국악심의번호 8903-S64(5LP/5MC)/가사는 1968년 녹음/가곡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2년 실황 녹음)

현재 정가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이 이주환의 직·간접적인 지침을 받을 만큼 이주환은 광복 이후 정가부문의 대부였다. 가사, 가곡을 담은 음반 가운데 이 음반이 가장 명반으로 꼽힌다. 이주환의 구수하고 넉넉한 성음이 돋보이며, 김천홍, 김성진, 기태섭, 최충용 등의 반주 또한 일품이다.

○ 「김월하 : 시조 1집」 (아세아레코드 ALS-1031(1LP)/1965년

녹음)

현재 시조의 대명사처럼 널리 알려져 있는 김월하의 음반이다. 이 음반은 1965년에 신세기 레코드에서 발매되었던 김월하 시조음반을 아세아레코드에서 편집하여 두장으로 발매할 계획이었으나 1집만 제작되고 2집은 아직 제작되지 않았다. 그의 장기인 ‘춘면곡’, ‘바람은 지동지듯’ 등이 담겨 있다.

○ 「정농악회 영산회상」 (성음 SEL-100 122 (4LP)/1980-1981년 녹음)

영산회상은 정악의 대표적인 기악곡이다. 이 음반은 국악음반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1980년대 중반부터 국악 애호가들로부터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다. 네장의 음반에 각기 ‘현악영산회상’, ‘평조회상’, ‘관악영산회상’, ‘별곡’을 담고 있다. 한없이 느린 템포로 연주될 때는 동방의 여유가 느껴져 듣기 좋다. 김천호, 김성진, 봉해룡과 같은 거장들의 연주를 들을 수 있음은 이 음반을 감상하는 커다란 기쁨 중 하나다.

○ 「김천홍 : 해금 독주집」 (성음 SEL-RS 199(1LP)/1970년대 녹음)

종묘제례악과 처용무의 인간문화재인 김천홍의 해금 연주집이다. 처량한 느낌을 주는 해금을 가지고 장중한 분위기의 정악을 연주한다. 정악의 대표적인 기악곡인 ‘별곡’, ‘취타’, ‘염양춘’ 등이 담겨 있다. 정악 연주집 가운데는 이 음반이 명반으로 꼽힌다.

◎ 종교음악 : 범패와 굿

○ 「박송암, 장벽웅 : 범패」 (중앙일보사 ‘국악의 향연’ 전집 중 27번 음반/1970년대 초반 녹음)

이 음반에는 인간문화재인 박송암, 장벽웅이 녹음한 범패가 있다. 범패 음반은 무척 드물게 제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이 음반 외에 다른 범패음반은 폐반되어 현재 구해서 들을 수 있는 음반은 이 음반뿐이다.

○ 「김종조, 김주호 외 : 배뱅이 굿」 (서울음반 SRCD-1098 (1CD)/유성기 음반 복각/1936년 원반 녹음)

일제 때 서도소리의 대부였던 김종조 등이 녹음한 음반이다. 지금

은 변질되거나 전승이 끊어진 서도소리의 진수를 들려준다. 시원하게 뿜아내는 김종조의 소리는 여름철 피서음악으로 제격이다. 이은관의 배뱅이굿과 비교하여 감상하면 흥미롭다.

○ 「김대례, 박병천 외 : 진도 씻김굿」 (서울음반 SRCD-1134 (1CD)/1991년 녹음)

외국에서 나온 음반을 라이선스로 수입해 제작했다는 것이 문제지만, 예술성이 탁월하고 생동감있는 음질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각지의 여러 곳 중에서도 진도의 씻김굿은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음반에는 인간문화재인 김대례, 박병천이 참여했다. 두 명인의 한 서린 외침과 환상적인 장구리듬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 사물놀이와 창작국악

○ 「김용배, 김덕수 외 : 사물놀이」 (오아시스레코드사 OLW-348 (1LP, 1CD)/1980년경 녹음)

세계에 국악을 알리는 데 가장 큰 공헌을 세운 김용배, 김덕수 등의 사물놀이 음반이다.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해서 제작한 음반으로서 사물놀이 음반 가운데 가장 명반으로 평가된다. 사물놀이의ダイナ믹한 리듬이 잘 담겨 있고, 지금은 고인이 된 뿔가리의 명인 김용배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 「황병기 : 가야금 작품집 1번」 (장구 : 안혜란/성음 SEL-100 069(1LP)/1978년 녹음)

황병기는 국악을 현대에 맞게 창작국악으로 계승하고 세계에 알리는 데 공을 세운 가야금의 명인이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장르를 초월해 여러 음악애호가들에게 애청되고 있다.

자료 : 월간음악, 1994. 3.

우리 노래 이해하기



우리가락 덩더쿵
숨은 노래가사 맞추기
옛말 속뜻 찾기
명창의 삶 속으로

1. 활동과정

개 요	다양한 삶을 표현한 우리노래의 높낮이와 빠르기를 느껴보고, 노래가사 속에 있는 다양한 삶과 정서를 공감함으로써 우리노래의 독특한 멋을 이해한다.			
활 동 과 정	우리노래의 여러 장단을 알아보고, 몸으로 표현한다.	우리노래의 가사를 정리하고 그 안에 담겨진 정서를 공감한다.	이해하기 힘든 노래 가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독특한 멋을 이해한다.	명창의 삶과 같이하는 우리노래 특징을 알아본다.

2. 활동내용

활동 1 우리가락 덩더쿵

- 활동내용
- ▷ 우리노래의 기본장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준비된 자료를 통해 안다.
 - ▷ 입과 손 등으로 장단을 따라한다.
 - ▷ 장단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을 선발하여 발표한다.

활동방법 ☒ 강의 ☐ 공개토론 ☒ 역할연기 ☐ 게시 및 전시

장단은 우리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노래의 맛을 알려면 무엇보다도 장단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할 정도니까요. 특히, 저같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우리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장단을 중심으로 우리노래를 이해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보면 술취한 어른들이 젓가락을 두들기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장단을 맞추는 모습이라고 하더군요. 옛날에는 장구나 북으로 장단을 맞추었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표현하나 봐요. 제가 알기로 장단은 빠르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주로 박자와 같은 개념이라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단의 종류도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휘모리, 단모리 등과 같이 다양하다는 것도 배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민족의 전통적인 음악은 대부분 3박자 계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잘 아는 아리랑, 도라지타령, 방아타령과 같은 민요도 3박자고, 산조같은 것에도 3박자가 많다는 사실은 노래를 부르면서 팔을 흔들어 보면 정확히 나타난다니까요. 우리나라 노래에 3박자가 많은 것은 말이 달리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말을 탈 기회가 한번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말이 달리는 소리를 입으로 흉내내면 “다그덕 다그덕 다그덕”이 되니까 3박자로 돌리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민족이 유난히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북으로 칠 때의 소리를 사람이 흉내내는 것을 구음이라고 하는데, 함, 궁, 딱, 탁, 구궁, 따르락으로 나눕니다. 먼저 ‘함’은 왼편 가죽을 치면서 동시에 북채로 오른편의 북가죽을 힘있게 치는 것을 말합니다. ‘궁’은 왼편 가죽을 치는 소리, ‘딱’은 북채로 북통의 앞쪽을 치는 소리, ‘탁’은 왼편 가죽을 손바닥으로 꺾 막으면서 북통 꼭대기를 힘있게 치는 소리, ‘구궁’은 왼편 가죽을 제빨리 두번 치는 소리, ‘따르락’은 북채로 북통 오른편 가를 가볍게 굴러 소리는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자신있게 양반다리를 하고, 왼발을 조금 더 앞으로 뻗어 발목 위에 북을 놓습니다. 그러나 북이 없기 때문에 마루에 있던 쓰레기통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파란색의 플라스틱으로 된 북을 바깥쪽으로 살짝 기울이자 시큼한 냄새가 흘러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북을 칠 수 있다는 기쁨이 냄새를 잊게해 줍니다. 휘몰아 치는 것과 같이 빠른 4박자에 해당하는 휘모리 장단을 입과 손으로 맞추어 봅니다. “합, 궁, 궁딱, 궁/ 합, 궁, 궁딱, 궁” 처음에는 손과 입이 따로 따로 놀다가 몇번 계속하니 속도도 붙고 흥도 나기 시작합니다. “합, 궁, 궁딱, 궁/ 합, 궁, 궁딱, 궁” 저도 모르게 흥이 나 북을 두들기던 종이뭉치의 속도가 빨라지고 갑자기 “뽕”하는 소리와 함께 그만 파란색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북이 깨지고 맙니다. 엄마한테 무어라고 변명을 하지?

도움자료

□ 장단치기

우리음악에서 장단은 가락과 함께 음악의 2대 요소를 이룬다. 그런 만큼 국악의 제맛을 느끼려면 무엇보다 장단을 알아야 한다. 장단이란 일정한 빠르기를 가진 리듬형으로 장구나 북으로 친다. 장단은 크게 정악 장단과 민속악 장단으로 나뉜다. 정악 장단은 곡에

따라 기본 장단형이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꾸밈없이 일정하게 치는 반면 민속악은 음악의 분위기나 연주자의 기분에 따라 가락이 약해지는 부분과 한 음을 길게 끌어주는 부분, 끝부분에서는 오히려 잔가락을 넣어 다양하게 하고 가락을 한창 엮어갈 때는 반주가 락을 덜어주는 묘미를 보이면서 갖가지로 변화시켜 치기 때문에 한층 흥겹다.

장구의 부호 및 연주 요령

	부호	명 칭	구 음	연주요령	서양음표
1	⊙	합장단	명	채편과 복편을 동시에 함께 치	
2		채 편	덕	오른손 채로 채편을 치	
3	○	복 편	쿵	왼손바닥으로 복편을 치	
4	⋮	굴림채	더러러러	오른손 채로 채편을 굴림	
5	┆	겹 채	기 덕	오른손 채로 채편을 겹쳐 치	
6	•	찍음채	더	오른손 채로 채편을 찍음	

자료 : 이성재, 1994.

활동 2 숨은 노래가사 맞추기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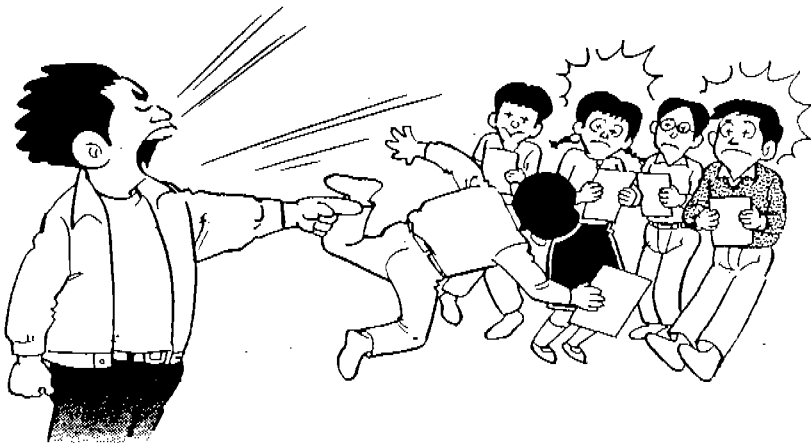
- ▷ 자유롭게 민요 가사나 시조를 돌려가며 읽는다.
- ▷ 노래가사 일부분의 글자순서를 바꾸거나 모양을 뒤집어서 뒤죽박죽 만든다.
- ▷ 각 모둠은 이 가사가 어떤 노래의 일부분인지를 맞춘다.
- ▷ 노래의 제목과 분야,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면 가산점을 얻는다.
- ▷ 가사를 통해 드러나는 민요와 시조의 기본적인 성격에 대해 토의한다.

활동방법

☒ 토론 ☐ 구안법 ☐ 현지답사 ☒ 공개토론

노통이의
도움활동

민요가 담긴 노래집을 보니 가사는 정말 끝도 없이 많더군요. 이 노통이가 잘 부르는 ‘진도아리랑’만 해도 가사가 수십절이나 되고 경기도 민요인 ‘노랫가락’은 100절이 넘는 가사가 채록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긴 가사를 두고도 모자라 부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때그때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 부를 수 있다는 것이예요. 정말이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도 할 말이 많았는지 궁금하기까지 하다니까요. 병석이는 그래도 시조가 더 좋대요, 민요는 너무나 감정표현이 직설적이고 노골적이라서 품위가 없단가요? 틀림없이 병석이네 조상은 양반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자유시간이 지나고 이제 게임시간이 되었어요. 그냥 보아도 잘 모를 노래구절을 어떤 글자는 거꾸로 세우고 어떤 글자는 뒤집어서 보여주니,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거꾸로 돌리기도 하고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는 가사가 몇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았죠. 그런데 시조전문가인 병석이는 싸늘한 눈초리로 글자아닌 글자를 쳐다보더니 “저건 시조야!”라고 크게 소리쳤어요. 마치 그 소리에 놀란 종이들이 제모습으로 돌아올 정도로 말이에요. 더욱 상기된 얼굴을 하던 병석이는



잠시 후 여유있는 얼굴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하면서 어깨를 흔들거리며 자신있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보는 우리 글자도 이리저리 돌려보니 참 알 수 없는 모양이 되는군요.

활동 3 옛말 속뜻 찾기

활동내용

- ▷ 노래의 가사 중에서 이해하기 힘든 단어를 선택하여 그 단어가 쓰인 대목을 듣는다.
- ▷ 그 단어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을 카드에 적어 제출한다.
- ▷ 제출된 정의를 하나씩 읽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정의에 손을 들어 의견을 표시한다.
- ▷ 국어사전에 있는 정의를 맞춘 사람과 가장 많은 표를 유도한 사람 모두에게 상을 준다.

활동방법

___ 게시 및 전시 ☒ 강의 ☒ 시청각 ___ 역할연기

노통이의 도움활동

얼마전이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갑자기 동호가 가사 중에 나오는 ‘청포장수’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며 청포장수란 “파란 옷감만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겠어요? 더구나 자기 할아버지도 청포장수였다고 하면서 아직도 집에 가면 그 때 팔다 남은 옷감이 한 보파리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우리에게 보고 싶으면 당장 집으로 가자고 옥박지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성표는 우리를 보며 청포장수란 “전설에 나오는 파란 옷을 입은 장군”이고, 가끔 자신의 꿈에 나타나 우리민족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시는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커서 그런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다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엄숙히 선서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그 심각한 모습을 보니 정말 그런가 싶더군요. 저는 “녹



말목을 전문적으로 파는 장사꾼”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모두들 자신들의 주장이 정답이라고 아우성쳤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 국어사전을 찾아보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녹두밭에 앉지 마라/녹두꽃이 떨어지면/청포장수 울고간다”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국어사전을 살펴보니, 저의 주장이 맞았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청포장수라는 단어는 나와있지 않았지만, ‘청포’란 녹말목을 말한다고 되어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의 입씨름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분명히 청포장수가 없기 때문에 성표는 “청포를 먹는 장군”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음악책을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전봉준이라는 인물이 사망한 이후에 생긴 노래라고 설명되어 있고, 여기서의 청포장수란 녹말목을 파는 장사꾼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주장한 것이 맞았지만 성표나 동호가 생각한 것도 매우 재미있습니다.

□ 우리노래 가사의 속뜻 찾기 예

◎ 민요(쾌지나 칭칭 나네 -경상도민요)

(굿거리)

쾌지나 칭칭 나네

하늘에는 별도 총총 가자가자 어서가자

이수건너, ① 백로가자 시내강변에 자갈도 많다

살림살이는 말도 많다

하늘에다 벼들을 놓고 ② 잉어 잡아 복을 농세

정월이라 대보름날 팔월이라 추석날은

세월은 흘러도 설움만 남네

(자진모리)

쾌지나 칭칭 나네

달아달아 밝은 달아 우주 강산에 비친 달아

강변에는 잔풀도 많다 술밭에는 ③ 콩이도 많다

대밭에는 잔풀도 많다 어허 좋다 좋고 좋네

이 논배미를 어서 심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풋고추의 단 된장에 보리밥 찰밥 많이 먹자

일락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령에 달 솟는다

쾌지나 칭칭 나네

○ 숨은 뜻

① 강물이 갈라지는 곳에 백로가 많이 날라와서 ‘백로주’라고 불리운다.

② 벼들의 낱실을 위아래로 움직여 한칸씩 걸어서 끌어올리도록 맨 굽은 실

③ 웅이

◎ 판소리(이산 저산)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 왔건마는 세상사 쓸쓸허더라. 나도 예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허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만겨 현들 쓸 데가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

이 되면 ① 녹음방초승화시라. 옛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② 한로상풍 요란하여, 제 절개를 굽히지 않은 황국 단풍도 어찌현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③ 낙목한천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온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④ 천지백허니 모두가 백발이 벗이로구나…….

○ 숨은 뜻

- ① 푸른 잎이 우거지고 온갖 꽃이 한창 피어날 때
- ② 찬 이슬과 북쪽에서 부는 바람
- ③ 나무의 잎이 모두 떨어진 추운 겨울
- ④ 하늘과 땅이 모두 하얀

◎ 시조

바람아 불지마라 정자나무 잎 떨어진다
세월아 가지마라 영웅호걸 다 늙는다
이 좋은 태평연월에 무진(無盡)토록 놀리라

십년을 경영하며 초려(草廬) 한 간 지어내니
반간은 청풍이요 반간은 명월이라
강산을 들일 데 없으리 둘러 두고 보리라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그 중에 절로 자란 몸이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활동 4 명창의 삶 속으로

활동내용

- ▷ 몇 명씩 모여 판소리 명창 중 한 명을 선택한다.
- ▷ 명창의 일생을 알아보고 인상적인 부분을 찾아 시나리오로 만든다.
- ▷ 구성원간의 역할을 정하고 작은 규모의 연극을 한다.
- ▷ 가장 감동적으로 명창의 삶을 표현한 모둠에게 상을 준다.

노통이의
도움활동

우리는 ‘임방울’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름을 저는 오래 전 큰외숙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유성기 음반을 모으는 것을 취미로 삼고 계시는 외숙댁에 갔을 때 잡음과 함께 흘러 나오던 그 목소리가 제게는 무척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그 이름을 듣고 재미있다고 하면서 “방울방울”하고 웃습니다. 판소리 명창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어떤 이야기가 재미있을까 시나리오의 주제를 찾아보니, 임방울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로 만들어도 좋을 만큼 극적입니다. 임방울은 정말 영웅이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를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하는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25세의 임방울이 처음 서울에서 축대머리를 볼렸을 때 시골뜨기라고 그를 멸시하던 당대 유명한 기생이 공연이 끝난 다음 날 비단옷 한벌과 구두를 바쳤다고 합니다. 우리 모둠에서는 ‘추억’이라는 노래에 감추어진 사연을 시나리오로 만들기로 합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임방울이 명성을 얻기 시작한 즈음 김산호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 2년이라는 세월을 세상과 벽을 쌓고 소리를 잊고 지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한 그는 어느날 산 속으로 혼자 소리공부를 떠났고, 임방울의 행방을 알지 못한 산호주는 마침내는 병을 얻게 되었는데 그 병이 깊어진 후에 간신히 임방울의 행방을 수소문해 찾아간 산호주를 임방울은 끝내 만나주지 않았다. 산호주는 임방울을 애타게 그리다가 마침내 세상을 뜨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방울은 산호주를 위해서 즉흥으로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그것이 바로 ‘추억’이라는 노래이다.”

우리 모듬은 임방울과 김산호주의 대화를 시나리오로 엮었고, 추억의 가사를 다른 친구들에게 읽어 줍니다. 산호주의 애절한 심정을 잘 표현한 미정이 덕분에 우리 모듬은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듬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판소리가 이런 명창들이 이루어 낸 산물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명창들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득음을 위해 일생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예술혼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료 : 최동현, 1994.

도움자료

□ 명창의 역사

판소리가 훌륭한 예술의 경지로 승화된 것은 삶 자체를 소리에 바친 명창들 덕분이였다. 명창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자신의 소리를 개발하여 눈부신 음악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소리꾼들이 뛰어난 소리를 얻기까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과 가난을 견디어야 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 양반 사회의 질서가 서서히 흔들리고 평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전문 예능인들, 즉 광대들에 의해 서민문화가 발달하는 단계에서 판소리가 만들어졌다. 광대들은 전라도 무속음악의 바탕에 민요, 잡가, 시조, 가곡, 염불 등의 갖가지 음악적인 요소를 덧붙이고 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언어를 가미해 판소리의 내용과 표현을 풍부하게 발달시켰다. 또한 부유한 양반들이나 중인계층의 오락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해 새로운 가락이나 장단을 첨가하는 등 판소리를 점차 수준높은 예술로 승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리꾼들의 기량이 발달해 전문화되고 관객 또한 확대되어 소리만을 전문으로 하는 소리 광대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 시청각 자료

○ 「최후의 광대 명창 — 박동진」 (MBC/우리시대의 명인/1991. 6. 6/60분)

판소리 명창 박동진옹은 76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공연과 전수를 위해 정력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5-9시간에 이르는 흥보가, 춘향가 등을 완창해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전’, ‘이순신전’ 등 새로운 판소리 제작에도 힘써왔다.

○ 「소리꾼 60년 — 강도근」 (MBC/우리시대의 명인/1991. 7. 11/60분)

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부분(흥보가)의 기능보유자인 명창 강도근의 생애와 예술관을 조명한다. 흔히 ‘동편제의 마지막 거장’이라고 불리는 강도근의 소리는 소리보다 농사짓기를 좋아했던 소박한 농민적 심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땅에서 뽑아낸 듯한 탁하면서 강한 소리를 내고 있다.

3. 유의사항

- ◎ 우리노래 이해하기과정은 우리노래가 지닌 종류와 특징, 의미를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 ◎ 우리노래가 지닌 음의 빠르기와 높낮이, 다양한 종류의 노래 가사, 명창들의 삶과 같이 한 우리노래 고유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둔다.
- ◎ 여러가지의 게임의 형식으로 제시되는 활동을 마친 후에는 정리와 평가시간을 가지면서 노래에 나타난 우리민족의 정서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한다.

4. 참 고

□ 우리음악의 장단

◎ 장단의 의미

장단이라는 말은 몇 가지 의미를 갖는 복잡한 개념이다. 장단은 우선 서양 음악의 박자 개념을 갖는다. 중모리장단은 12/4박자이고 중중모리장단은 12/8박자이다. 또 장단은 속도를 나타낸다. 같은 12박자라도 1/4속도이면 중모리장단이 되고 1/8속도이면 중중모리장단이 된다. 같은 박자, 같은 속도라도 강약이 다르면 장단의 종류가 달라진다.

◎ 민요장단

우리 민요는 소리가락에 장단을 맞춘다. 기본 장단을 바탕으로 소릿가락의 흥겨움과 애절함에 따라 장단을 변화하기 때문에 민요의 참 맛을 알려면 최소한 가락에 맞는 장단을 알아 손장단이라도 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민요에서 많이 쓰이는 장단으로는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세마치, 굿거리, 타령 등이 있다. 같은 아리랑이라도 세마치장단에 맞추어 부르면 흥이 절로 나고 느린 중모리장단에 맞추어 부르면 구슬픈 마음이 생기는 등 민요는 여러 장단에 맞추어 부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민요에 비해 특이하다고 하겠다.

◎ 판소리장단

서양음악에서 렌토,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프레스토 등의 빠르기가 있듯이 판소리에도 진양조와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장단을 기본으로 하여 휘모리, 엇모리, 단모리, 휘중모리, 대마디 등 다양한 장단이 있다.

진양조장단은 가장 느린 장단으로 ‘춘향가’ 중 춘향과 이도령이 노는 장면을 그린 ‘긴사랑가’와 같이 화평하고 애절한 대목에 많이 쓰인다.

중모리장단은 중간 빠르기로 몰아간다는 뜻으로 6박자씩 2소절로 1음구절을 이룬다. 담담하고 서정적인 장면에 쓰인다.

중중모리장단은 중모리보다 조금 빠른 12박자의 장단으로 ‘홍보가’

중 ‘돈타령’과 같이 기쁘고 경쾌한 대목에 쓰인다.

자진모리장단은 빠르게 몰아가는 12/8박자로 구성되어 황급한 상황을 풀어나갈 때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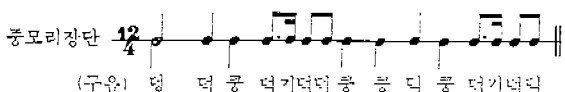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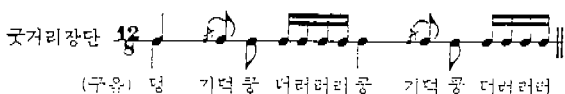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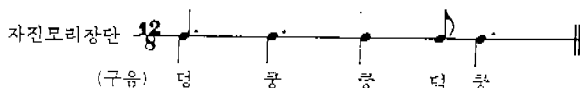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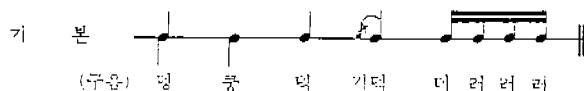
휘모리장단은 판소리 장단중 가장 빠른 것으로 ‘춘향가’ 중 신관 사또 부임 대목, ‘홍보가’ 중 박타는 대목처럼 흥분과 긴박감을 나타내는 대목에 쓰인다.

엇모리장단은 8/10박자로 색다른 사람의 등장이나 별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할 때 사용된다.

엇중모리장단은 보통 빠르기의 6박자로 구성되며 판소리의 끝부분에 많이 쓰인다.

장단 외에도 기본적인 창조로 소리의 분위기를 달리하는 데 평조나 우조는 밝고 기쁜 대목에 사용하며, 계면조는 어둡고 괴로운 대목에 사용된다.

◎ 기본장단의 악보



□ 꼭 알아야 할 명인 · 명창

◎ 노래의 명인들

○ 허정(1621-?)

효종때의 가객. 해동가요의 역대 명창 소개에서 제일 첫머리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가곡의 명창으로 추정된다.

○ 장우벽(1730-1890)

가곡계 최고의 명인. 통례원 인의로 벼슬에 나섰다가 1년만에 퇴직한 후 속세를 떠나 은둔 생활을 하였다. 매일 인왕산 중봉에 올라가 장안을 굽어보며 창가로 소일했다고 전해진다. 즉흥적이고 일정한 규칙이나 통일된 박자도 없었으나 영조때 장우벽이 매화점 장단을 만들고 노래의 체계를 정리함으로써 가법이 완성되었다.

○ 최수보(?-?)

고종때 활약한 가곡의 명인. 오동래를 통하여 장우벽의 가곡을 계승한 명인으로 박효관과 당대를 풍미하던 명창이다. 명인 하중곤과 하규일에 이어져 현재 가장 널리 퍼져있다.

○ 하규일(1867-1937)

근세 가곡의 명창. 서울 출신으로 가곡의 명창 하순일과 사촌간인 하규일은 작은 아버지 하중곤에게 가곡을 배운 다음 최수보에 사사하여 대성하였다. 국권상실 후 음악에만 전념하여 1911년 조선 정악전습소 학감 등을 맡았고 1912년 대정권변, 1924년 조선권변을 창립하였다. 1926-1937년 현대 국악의 중심지인 이왕직 아악부의 촉탁으로 취임하면서 가곡, 가사, 시조 등을 전수하였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가곡은 모두 그에게서 전해진 것이다.

○ 임기준(1868-1940)

가사와 시조의 명창. 1939년부터 이왕직 아악부의 촉탁으로 있으면서 사설저림시조, 양양가, 수선화가 등 30여곡을 전수하였다.

○ 최정식(1886-1951)

시조, 가사, 경서도창의 명창. 금강산 타령, 풍동가를 작사·작곡하였고 조선권변에서 잡가를 가르쳤으며 정경파, 묵계월, 안비취, 조백조 등이 그의 제자이다. 광복후 대한국악원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 이병성(1909—1960)

거문고의 명인으로 이수경의 아들로써 전공은 피리였으나 하규일에
게 가곡을 이수하여 대성하였다.

◎ 민요의 명인

○ 장학선(1905—1969)

서도소리의 명창으로 관산용마로 유명하다.

○ 이반도화(1920—?)

정통 서도소리 명창으로 수심가, 산염불 등이 유명하다.

○ 오복녀(1931—)

서도소리 보유자로서 대동강물을 먹은 마지막 서도소리 명창이다.
평양출생 5음이 아닌 12음계 채록이란 새로운 기보법을 창안하였
다.

○ 김정연(1913—1987)

평양에서 태어난 전통 서도소리 명창으로 김칠성에게서 서도소리를
전수받고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아 오복녀와 함께 서도소리의 대성을
이루었다.

○ 안비취(1926—)

경기, 서도소리명창인데 복명, 복식, 조선권번에서 음악 수업을 받
고 최정식에게서 12잡가를 배웠다. 현재 경기, 서도민요 12잡가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이다.

○ 목계월(1921—)

본명은 이경옥.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서 ‘창부타령’, ‘방아타령’
등의 경기민요 외에도 삼설기의 낭독에 통달하였다.

○ 이은관(1917—)

이인수 명창에게서 서도민요와 배뱅이굿을 배웠다. 독특한 음색이
일품이며, 무형문화재 서도소리 기능보유자이다.

◎ 판소리 명인

○ 박유전(헌종—고종)

전북 순창 출신으로 대원군 때 전성기를 구가하던 소리꾼이며 서편
제를 창시했다. 후에 보성군 강산리에 살았는데 훗날 그의 이름을
따서 강산조라도고 하였다.

○ 모흥갑(순종-철종)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그는 ‘적벽가’를 뛰어나게 잘 했다고 한다. 헌종에게서 종이품의 동지벼슬까지 제수받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누렸으며, 당대의 명창 송홍록과 함께 실력겨루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 송홍록(1949-?)

전북 운봉 출신으로 당대의 최고 명창이었으며 특히 춘향가 중에서 옥중가를 귀곡성으로 잘 했다고 한다. 그의 귀곡성은 판소리 계면조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 이날치(순조-고종)

본명은 이정숙으로 본래는 줄타기의 명인이었다고 한다. 줄을 날치처럼 잘 탄다고 하여 날치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유전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소리꾼으로서의 인생을 살았으며 수리성을 타고난 서편제의 명창이었다. ‘새타령’에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한다.

○ 정창엽(1847-1919)

전남 함평출신으로 박유전의 문하에서 소리공부를 한 서편제의 명창이다.

○ 이동백(1866-1950)

충남 서산생으로 흔히 근대 판소리의 5대 명창 중 송만갑과 이동백을 최고로 두고 두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있을 만큼 판소리의 독보적인 존재이다.

○ 송만갑(1965-1939)

흔히 국창(國唱)이라고 일컬어지는 판소리의 명인으로 3대를 잇는 송문일가의 마지막 명인으로 가문의 배척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소리를 확립하여 쟁쟁한 명인들을 키워냈으며 1908년 협률사 순회공연으로 소리보급에 노력하였다.

○ 김정순(1873-1940)

가야금의 명인인 심창래의 아들로 지금은 잊혀진 중고제 소리의 마지막 명창이다. 가야금 병창에도 탁월한 솜씨를 보였다.

○ 이화중선(1898-1943)

부산 출신으로 협률사의 공연을 듣고 판소리를 배우고자 결심하여

남원에서 장득주에게 기초를 배우고 서울에서 송만갑, 이동백의 지도로 대성하였다.

○ 정응민(1896—1979)

동편제와 서편제의 좋은 점을 융합시킨 보성소리를 창시한 거두이다.

○ 박록주(1905—1979)

협률사의 공연을 본 부친이 박록주에게 소리를 익혀 노름빔에 쓸 요량으로 소리를 가르쳤다. 매우 남성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여류명창이다.

○ 임방울(1904—1961)

전남 광산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제를 확립하기 위해 힘을 썼기 때문에 귀명창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쑥대머리로 자신의 영역을 확실히 구축하였다.

○ 김여란(1907— 1983)

정정렬에게 소리를 배워 금강산 2년 수도 끝에 명창이 되었다.

○ 박동진(1916—)

충남 공주에서 출생하여 김창진, 정정렬에게 소리를 배웠고 1968년 흥보가를 완창해서 완창 판소리의 시대를 열었다.

○ 김소희(1917—)

전북 고창에서 출생하여 1930년대부터 송만갑의 문하에 들어가 판소리를 시작하였다.

○ 정권진(1927—1986)

정응민의 외아들로 태어나 골수 강산제를 이어받는 명창이며 보성소리의 대업은 그의 아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 조상현(1939—)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대가들의 소리제를 제대로 물려받았고 독공을 통해 공력을 쌓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현존하는 국창으로 여겨진다. 정응민이 스승이다.

○ 안숙선(1943—)

다재다능한 소리꾼으로 현재 주목받는 여류명창이다.

자료 : 월간음악, 1994. 3.

우리 노래 의미찾기



노래따라 가락따라
그곳에는 그곳의 노래가
슬픔은 진양조로 웃음은 휘모리로
명창족보 만들기

1. 활동과정

개 요	우리노래의 기본적인 장단과 지역적인 특성을 알고, 우리노래가 지닌 음악적인 구조를 파악한다.			
활 동 과 정	다양한 속도와 높낮이로 불러주는 우리노래를 듣고 그 상황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노래지도를 그리고 우리노래의 지역적인 특징을 파악한다.	판소리의 사실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표현되었는가를 안다.	우리노래 명창들의 계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노래의 역사를 안다.

2. 활동내용

활동 1 노래따라 가락따라

- 활동내용**
- ▷ 편안한 기분으로 다양한 우리노래를 듣는다.
 - ▷ 선호하는 대표적인 노래를 선정한 후, 노래가락이 지닌 분위기를 상상하여 그 느낌을 자유롭게 행동으로 표현한다.
 - ▷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 노래에 대한 느낌을 토론하고 표현형태를 통일하여 발표한다.

활동방법 ☐ 공개토론 ☒ 분임토의 ☒ 역할연기 ☒ 시청각

노통이의
도움활동

얼마전에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한 서편제 영화의 음악테이프를 누가 사와 처량하게 듣습니다.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대금소리가 울리는 방구석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춘기도 다 지난 어른이 갑자기 그렇게 처량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감히 말도 걸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 오늘 점심시간에 학교방송국에서 서편제 영화음악을 방송하는 것이 없겠어요. 2교시 쉬는 시간에 자기 도시락을 헤치워버리고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던 혜란이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심청전의 ‘선창가’가 나오자 젓가락을 휘저으며 괴로운 표정으로 이 책상 저 책상의 도시락을 휘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이어 나오는 대금 소리에는 병석이가 갑자기 책상 위에 올라 앉아 정좌한 스님처럼 무슨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김명곤아저씨의 “이산저산 꽃이 피니...”가 나오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이거든요. 드디어 그 노래가 나오자 저는 뒷짐을 지고 양반 걸음으로 책상 사이를 오가며 큰 소리로 따라 부릅니다. 그러자 저의 뒤로 태형이가 비슷한 걸음 자세로 따라오며 손까지 흔들기 시작했고, 그 뒤로 영길이가 따라오며 책상 옆에 놓인 책가방을 발로 툭툭 차기까지 하자 친구들이 그만 두라고 아



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렬총대로 건다가 다음 음악인 대금 소리가 나자, 이번에는 병석이 뿐만이 아니라 식곤증으로 졸던 성표까지 눈을 비비며 책상위에 올라 앉아 가부좌를 틀기 위해 다리를 꼬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언가에 홀린듯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 노래는 몇가지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활 동 2 그곳에는 그곳의 노래가

활동내용

- ▷ 우리나라 지도를 그린 후에 크게 다섯가지의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민요의 특징을 자료를 통해 안다.
- ▷ 같은 민요지역을 기준으로 몇개의 지도에 동일한 색칠을 하고, 색깔별로 오려서 퍼즐조각을 만든다.
- ▷ 퍼즐조각을 한 바구니에 넣고 하나의 퍼즐을 제시하는 순간 가장 먼저 그 지역의 민요 제목을 제시하는 모둠이 퍼즐을 가져간다.
- ▷ 먼저 하나의 전체 민요지도를 완성하는 모둠이 승리하고, 게임이 끝난 후 각 지역의 대표적인 민요를 한 곡씩 듣는다.

활동방법

☐ 현지답사 ☐ 구안법 ☒ 분임토의 ☒ 게시 및 전시

노통이의 도움활동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고 토끼모양을 닮았다거나 아시아 대륙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호랑이 모양을 닮았다는 주장이 분분합니다. 저는 호랑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취적이고 힘있어 보이니까요. 세계지도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걸려 있는 우리나라 전체 지도를 보면 엄청나게 넓은 땅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넓은 땅이니까 노래도 아마 지역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러한 저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게임을 한다고 하니

다. 퍼즐 모양의 지역별 지도를 제시하면 그 지도에 해당하는 지역의 우리민요 제목을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누워서 떡 먹기라고들 한다죠? 먼저 저는 우리 모두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양한 고향을 지닌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병석이는 고향은 충청도, 영길이는 경기도, 강석이는 부산, 성표는 마산, 충호는 서울, 그리고 저의 고향은 강원도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자기의 고향과 성격, 좋아하는 노래는 모두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앗! 빨간색으로 칠해진 전라도 모양의 퍼즐이 올려졌습니다. 역시 영광이 고향인 영섭이가 재빨리 손을 들고 ‘육자배기’를 외친 덕분에, 상대방 모두가 먼저 벌써 빨간색의 퍼즐을 한장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노란색의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퍼즐이 올려졌고 우리 모두의 영길이가 쟁싸게 ‘몽금포 타령’을 외칩니다. 순간 저는 영길이의 아버지 고향이 평양 근처의 조그만 마을인 사실이 뇌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것은 빨간색의 퍼즐입니다. 상대방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심에 손을 번쩍 든 강석이는 머뭇거리다가 ‘도라지타령’을 힘없이 외쳤지만, 그 민요는 경기도지방의 민요입니다. ‘진도아리랑’으로 빨간색 퍼즐조각을 차지한 상대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동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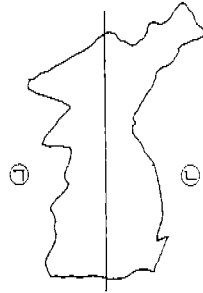
지방 모양의 파란색 퍼즐조각이 올려졌고, 계속해서 하얀색을 한 제주도 모양, 검은 색의 경기도 모양이 올려집니다. 퍼즐 조각을 서로 나누어 가진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제2라운드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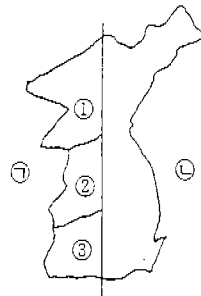
□ 민요지도제시

민요지도는 행정구역상의 분류가 아니라 문화권에 의한 지역적 분류라고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그 중 비교적 쉬우면서도 그 나름대로 보편성이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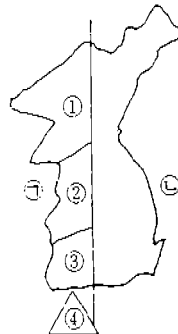
- ① 우리나라전체를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세로로 나누어 서부지방 민요권과 동부지방 민요권으로 분류한다.



- ② 서부지방 민요권을 다시 셋으로 나누어 서도 민요권(평안도, 황해도), 경기민요권(서울, 경기, 충청일부), 남도민요권(전라, 충청일부)로 한다.



- ③ 여기에 제주 민요권을 첨가한다.



자료 : 임수철, 1994.

활동 3 슬픔은 진양조로 웃음은 휘모리로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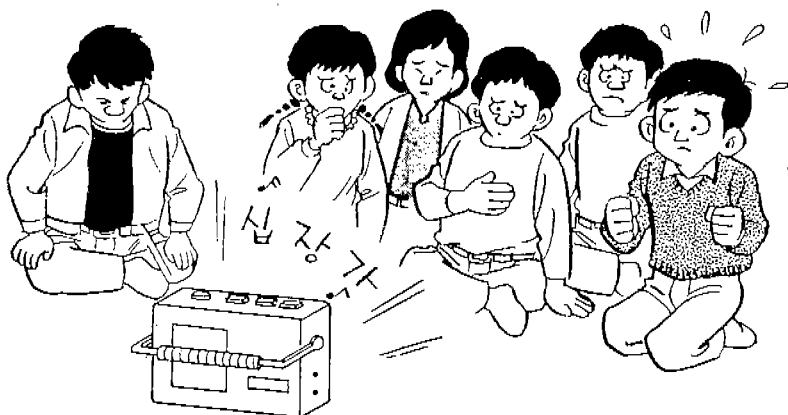
- ▷ 판소리 가사가 적힌 책과 녹음테이프를 준비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가락으로 표현되는가를 듣는다.
- ▷ 판소리의 가사 구성에 있어서 사건이 진행되는 부분에는 장단이 붙지 않고, 사건이 제시되는 정감적인 분위기를 나타낼 때에는 음악적인 선율이 결부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창이 나오는 부분을 번갈아 듣는다.
- ▷ 음악의 장단과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여 듣는다.
- ▷ 판소리를 들으면서 재미있던 부분과 감동적이었던 부분을 서로 자유롭게 발표한다.

활동방법

☒ 분임토의 ☒ 토론 ☒ 시청각 ☐ 워크샷

노통이의 도움활동

판소리의 이야기 내용은 누구나 잘 알려진 것인데 왜 사람들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또 듣는 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오늘은 친구들과 춘향가의 마지막 부분을 듣습니다. 춘향가



에서 수청을 돌리는 변사또의 명을 거절한 춘향이 모진 매를 맞으며 집장사령이 매를 한 대씩 때릴 때마다 그 숫자에 맞는 말로 춘향의 심정을 노래한 ‘심장가’가 구슬프게 계면조에 세마치장단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가락이 지닌 슬픔에 같이 빠져 버린 노통이는 갑자기 자신이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가락의 유희에 빨려간 것과 같은 심정…. 그러다가 변사또 생일잔치에 난데 없는 ‘어사 출도’ 부분이 나옵니다. 자진모리로 표현되고 있는 이 대목은 지금까지 긴장하고 있던 나의 마음을 편하게 풀어줍니다. 아, 소리의 예술…. 저는 감탄을 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긴장과 이완의 미학’입니다. 예전에 머리 속으로만 생각했던 판소리에 대한 노통이의 견해는 한 단계 도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판소리의 이야기 전개는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특정 상황에서의 감흥이 음악적인 장단과 조 또한 소리꾼의 음색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 부분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판소리의 예술성을 탐색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도움자료

□ 판소리 시청각자료

○ 「판소리기행」 (1988/90분/KBS VTR자료)

우리민족의 삶속에서 태어난 판소리의 발생 배경과 그 음악적 특성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조명한다. 박동진, 조상현, 김소희 등 명창들의 창 대목 대목의 배경을 화면으로 엮어나가며 김명곤이 리포터로 등장한다

○ 「한국문학의 원류를 찾아서—서민예술의 정수—판소리」 (1987/60분/MBC VTR자료)

서민의 생활 감정을 바탕으로 민요와 설화를 흡수하여 발달한 한민족 특유의 종합 예술인 판소리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익살과 해학으로 승화시킨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 「한국의 전통음악 시리즈 판소리」 (1988/60분/MBC VTR 자료)

성창순의 ‘춘향가’, 조상현의 ‘홍보가’, 전정민의 ‘심청가’, 박계향의

‘수궁가’, 박동진의 ‘적벽가’가 수록됨

○ 「다큐멘터리 춘향전」(1988/60분/KBS VTR 자료)

판소리 춘향가의 탄생 배경을 추적하는 한편 이 작품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춘향전의 배경설화와 해학, 풍자적 내용, 문장, 문체 등을 분석하며 외국의 춘향에 관한 연구와 성춘향의 실존 인물설도 추적한다

○ 「한국의 미－홍보가」(1992/60분/KBS VTR 자료)

고전적인 가치인 형제간의 우애와 놀부의 행위에서 볼 수 있는 해학의 의미, 조선후기 사회 변천사를 함께 엮는다

활동 4 명창족보 만들기

활동내용

▷ 판소리의 유파와 역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판소리 소사를 엮는다.

▷ 각 시대별로 유명한 명창들의 이야기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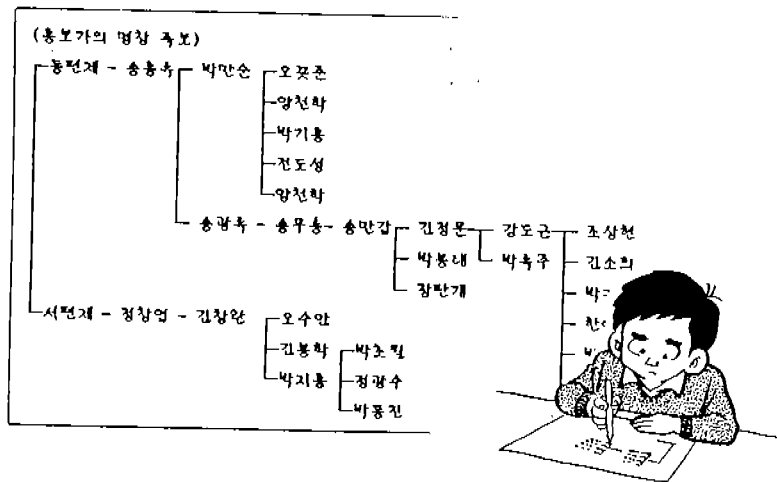
▷ 명창들간의 관계와 특징을 기준으로 명창 족보를 만든다.

활동방법

___ 현지답사 ☒ 토론 ☒ 구안법 ___ 게시 및 전시

노통이의 도움활동

저는 ‘전통 노씨’입니다. 전통이라는 마을이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 지도를 통해서도 잘 모르지만 오통이 형제가 우리 조상의 출발이라는 말은 가끔 들어 봤지요. 뿌리없는 나무가 없듯이 조상없는 사람은 없고, 역사없는 노래는 없겠죠. 얼마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서편제’라는 영화의 제목도 판소리 분야의 한 부분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서편제가 있으면 동편제가 있을텐데, 북편제와 남편제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소리가 노래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서편제 동편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우리의 판소리는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판소리의 뿌리를 찾아 보기로 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문헌을 통해 판소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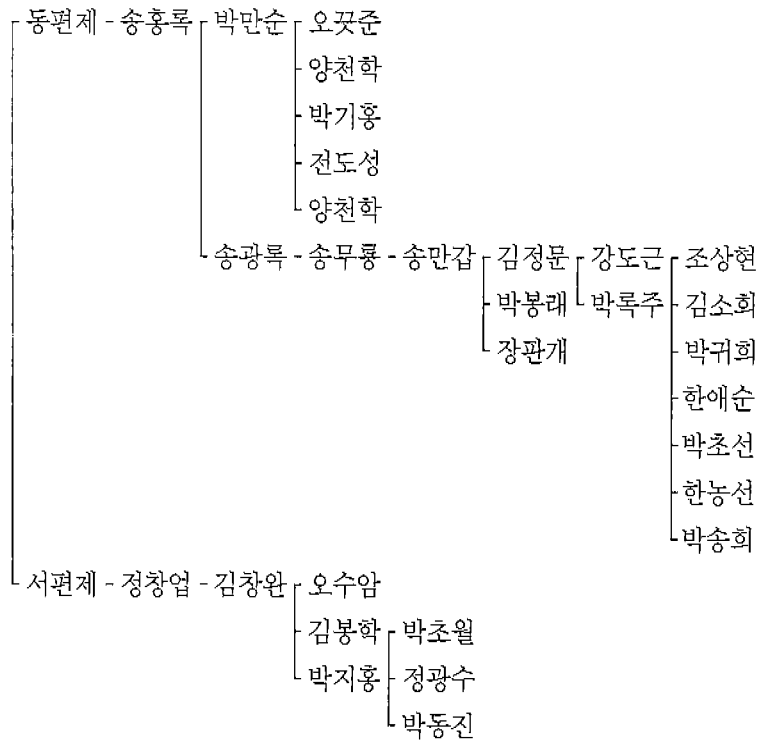


점은 조선시대 영조무렵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가 18세기 중반 이전이니까 17세기부터 판소리가 유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더구나 글로 기록을 남길만한 사람이면 당시의 양반 지식인층일 것이니까, 훨씬 전부터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반과 후반에서는 각각 전기 8명창의 시대와 후기 8명창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그 이름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대단한 인기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인기가요 베스트 10을 뽑는데, 아마 오래전에도 그런 인기순위가 있었나봐요. 그러다가 19세기말부터 현대시대의 초까지 5대 명창시대가 있었고, 일본의 침략시대에는 일본말로 판소리를 강제로 시키는 지경에 이르렀었다고 하니 분노할 일이지요. 이렇게 변해온 판소리의 역사를 보니까 무슨무슨 학과가 있듯이 판소리에도 족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판소리의 다섯마당마다 서편제와 동편제의 족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판소리에 대한 책을 뒤져보면서 만든 홍보가의 족보를 그려봅니다.

제가 만든 판소리 족보를 본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 자기 가문의 족보를 그려보겠다고 아우성들입니다.

(홍보가의 명창 족보)



3. 유의사항

- ◎ 우리노래 의미찾기과정은 우리노래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의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 ◎ 민요와 판소리를 듣고 부르기 위한 기본적인 장단의 구조를 이해하며,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 재미있게 익히고, 지역에 따른 노래의 특성이 어떤지를 알도록 한다.
- ◎ 우리노래가 지닌 정서와 역사를 알기 위해 명창들의 계보를 알아봄으로써 잊혀진 우리노래의 진수를 안다.

4. 참 고

□ 음계와 선법

서양의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로 구성된 7음계이다. 우리음악의 음계는 흔히 5음계라고 말해진다. 그러나 음계속에 음을 배열하는 방법에 즉, 선법에 따라 음계의 차이가 있다. 서양음악의 선법에 장조와 단조가 있듯이 우리음악에도 장조와 비슷한 평조와 단조와 비슷한 계면조가 있다. 평조는 장대하고 화평하며 계면조는 슬프고 애절한 느낌을 준다. 정악의 경우는 두 선법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민속악은 두가지만으로 나누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판소리의 평조, 우조, 계면조라는 구분은 악보상의 분석에 의한 선법이기 보다는 소리꾼의 음색과 음량을 청각에 의해 분별한 것으로 넓은 의미의 창법에 속하는 개념이다.

□ 민요의 지역적인 특성

우리 땅 어느 곳을 가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성진 노래 가락이 없는 곳이 없다.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민요에는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냄새가 배어있다. 지방마다 지리가 다르고 역사적인 배경도 풍습도 다르니 자연적으로 민요의 맛도 달라지는 것이다. 민요의 지역적인 구분, 음악적인 성격, 발생법, 대표적인 민요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낙천적인 경기민요

경기민요는 서양의 장조와 비슷한 평조로 된 가락이 많아 깨끗하고 경쾌하며 가락과 악절이 분명한 도시풍의 노래이다. 음빛깔도 부드럽고 유창하며 서정적이다. 창단은 굿거리장단, 세마치장단, 타령장단을 사용하며 경기민요 중에는 민요가수가 불러 널리 알려진 노래가 많다.

경기민요에 속하는 노래는 우리가 잘 아는 아리랑, 도라지타령, 노들강변, 널너리아, 군밤타령, 개성난봉가(박연폭포), 양산도, 경북

궁타령, 노랫가락, 방아타령, 뱃노래, 태평가, 풍년가, 한강수타령 등이 있다.

◎ 구성진 남도민요

지역적으로는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를 포함하는 남도민요는, 보통 민요의 음악구조가 단순하고 가락이 서정적인데 비해 풍부하고 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서양의 단조와 비슷한 계면조로 된 가락이 많아 경기민요나 서도민요처럼 맑고 깨끗한 소리보다 조금 탁하고 거친 듯한 느낌을 준다. 남도민요는 낮은 소리는 떨어주고 중간 소리는 평으로 내고 그보다 높은 소리는 반드시 꺾는목을 쓰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꺾는목은 다른 지방사람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구성진 멋을 풍긴다.

잘 알려진 노래로는 강강술래, 까투리타령, 농부가, 등가타령(남원 산성), 물레타령, 육자배기, 진도아리랑, 흥타령등이 있다.

◎ 격정적이고 애련한 서도민요

지역적으로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의 민요인 서도민요의 가락은 단조롭지만, 떠는 음(요성)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보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진다. 떠는 방법에 있어서도 남도민요와는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도민요는 격렬하게 떠는 반면에 서도민요는 비음을 섞어서 촉급하게 떠다고 할 수 있다. 셈여림의 변화도 다양한 음악적 기법을 가지고 있는 서도민요는 한마디로 탄식조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남도민요에 비해 청이 높고 중간음에서 격렬하게 떨면서 숨가쁘게 몰아치다가 하강하는 창법을 사용한다. 황해도 지방의 산염불, 자진염불, 긴난봉가, 몽금포타령, 수심가, 평안도 지방의 안주애원곡, 수심가, 엮음수심가, 긴아리, 자진아리 등이 널리 알려진 서도민요이다.

◎ 힘있는 동부민요

함경도,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이 동부민요권에 속하는데, 동부민요는 그 지역에 따라 창법, 음계, 장식음이 조금씩 다르다. 강원도 민요는 산골의 정취가 어린 소박하고 애수에 찬 노래가 많다. 대표적인 민요는 강원도 아리랑과 정선아리랑, 한오백년등이다. 경상도 민요는 장단이 빨라 흥겹고 경쾌하며 밀양아리랑, 보리타

작노래(옹헤야), 성주풀이, 캐지나 칭칭나네 등이 있다.

함경도민요 탄식조나 애원조로 부르는 구슬픈 노래가 많다. 대표적인 민요로는 궁초대기, 애원성, 어랑타령(신고산타령) 등이 있다.

◎ 제주민요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고 불리우는 섬 제주에는 어느지방보다 노래가 많다. 단지 분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내용이 나 형식면에서도 단연 빼어나다. 제주의 민요는 소박하면서도 부드럽다. 가락이 역세거나 굴곡이 심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약하지 않은 곳곳함을 가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오랜동안이 제주도의 생활은 여성의 노동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일노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주요 민요로는 오돌또기, 이어도 산아(해녀노래) 등이 있다.

◎ 지역별 노래와 관련된 시청각 자료

- 「김정연 서도소리」 (성음 SEL-100 111(2LP)/1980)
- 「오복녀 서도소리」 (서울음반 SRCD-1168)
- 「안숙선 남도민요」 (예음문화재단/1992)
- 「한국고전민요 제 1-3집」 (소리:목계월, 이은주, 안비취/한국음반/HC-2000054-(3LP)/1982)
- 「한국의 소리 '이은주 1집」 (아시아레코드 ACD-141)
- 「이호연 민요 대전집」 (세원음반 DICD-9326)
- 「한국음악 시리즈 제 1 집」 (목계월/한국민요/지구레코드 JCDS-0425)
- 「민요가락 이춘희」 (신나라레코드 SYNCD-0538)
- 「홍타령, 육자배기」 (소리: 안숙선, 박양덕, 김수연/SKCD SKCD- K- 0061)
- 「남도민요 모음」 (성창숙, 오정숙/메아리 SISCD-016)
- 「한국민요특선 제 2 집」 (이은주, 목계월/메아리 SISCD-014)
- 「신남도민요」 (안숙선, 김성녀, 강정숙/삼성기획 SMCD-004)
- 「향토민요」 (박귀희, 김소희/지구레코드 JCDS-0103)
- 「서도민요전집(1)」 (김종호, 김주호, 백운선/서울음반 SRCD-1136)

- 「남도 들노래」 (1991/60분/KBS VTR 자료)
- 「정선아리랑」 (1991/60분/KBS VTR 자료)
- 「산촌시가」 (1991/60분/KBS VTR 자료)
- 「평창아리랑」 (1991/60분/KBS VTR 자료)
- 「남도 베풀가」 (1991/60분/KBS VTR 자료)
- 「보성소리」 (1991/60분/KBS VTR 자료)
- 「사비의 숨결－산유화가」 (1991/60분/KBS VTR 자료)
- 「서우젯소리」 (1991/60분/KBS VTR 자료)

□ 판소리의 제

판소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가장 궁금한 것은 동편제니 서편제니 하는 구분일 것이다. 제는 단순히 유파의 의미뿐만 아니라 판의 짜임새나 더늠(어느 명창이 지어 불러 전승되는 창법)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때문에 단순히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 외에도 송만갑제, 권삼득제 등 더늠에 의한 구분, 서름제, 석화제, 사유화제의 음악적 분류가 있다.

◎ 동편제

섬진강 위쪽지역인 남원, 순창, 곡성, 구례, 흥덕 등지에 전승된 소리로서 가왕으로 일컬어지는 윤봉출신의 송홍록과 순창출신의 김세종, 청도 비가리(양반출신의 소리꾼을 이르는 말)로 전북여산에서 말년을 보낸 정춘풍의 소리양식을 계승한 소리이다. 우조(씩씩한 가락)의 표현에 중점을 두고 감정을 가능한 절제하며 장단을 대마더 대장단을 사용하여 기교를 부리지 않는다. 발성을 통성을 사용하여 엄하게 하며 구절 끝마침을 되게 끊어낸다. ‘목으로 우겨내는’ 동편소리를 제대로 내려면 소리를 하는 사람은 풍부한 성량을 지녀야 한다. 발림을 할 여유가 적은것도 한 특징이다. ‘웅건청담하고 발성이 신중하며, 매 구절마다 끝마침이 명확하여 마치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하다’고 표현된다.

◎ 서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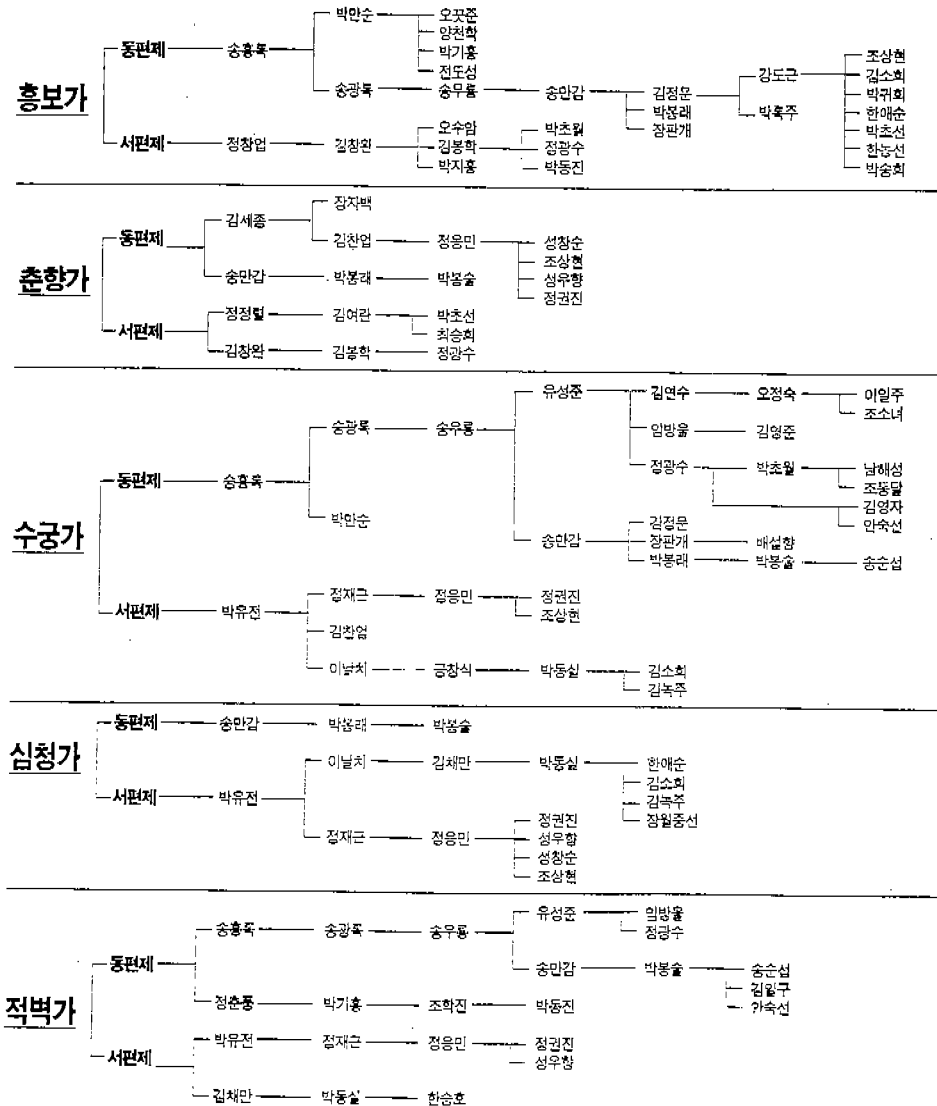
섬진강의 아래쪽인 광주, 나주, 담양, 화순, 보성 등지에서 전승된

소리로 순창출신이며 보성에서 말년을 보낸 박유전의 소리양식을 계승한 소리이다. 계면조(슬픈 가락)의 표현에 중심을 두며 발성의 기교를 중시하여 다양한 기교를 부린다. 소리가 늘어지는 특징을 지니며 장단의 운용면에서는 엇부침이라 하여 매우 기교적인 리듬을 구사한다. 또한 너름새(신체적인 표현, 동작)가 매우 세련되어 있다. ‘계면을 주장하여 연미부화하며 구절 끝마침이 좀 길게 끌어서 꿈지가 붙어다닌다’라고 서편제 소리를 말한다.

◎ 중고제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에 전승된 소리로 송홍록과 동시대 사람인 강경출신의 김성옥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정노식의 말을 빌면 ‘비동비서의 그 중간인데 비교적 동에 가깝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이후 전승이 끊어졌다.

□ 판소리 다섯마당의 명인



자료 : 월간음악, 1994. 3.

우리노래 부르기



민요를 메기며 받으며
자연과 벗하여 시조를
나도 판소리 한 대목쯤은
판소리 명창 선발대회

1. 활동과정

개 요	다양한 종류의 우리노래를 불러보고, 판소리판을 벌여 직접 소리를 함으로써 노래가 지닌 정서와 재미를 안다.			
활 동 과 정	민요를 메기고 받으며 부른 후, 가사를 바꾸어 부른다.	야외로 나가 시조를 따라 불러 보고 시조를 지어 평시조의 가락에 불러본다.	판소리 명창의 소리를 들어 보고, 판소리 한대목을 골라 익힌다.	명창 선발대회를 열어 우리노래의 진수를 알고 판소리판을 벌인다.

2. 활동내용

활동 1 민요를 메기며 받으며

활동내용

- ▷ 여러 곡의 민요 악보를 부분별로 나누어 가진다.
- ▷ 같은 제목의 노래끼리 모여 노래전체의 악보를 완성하고 부른다.
- ▷ 노래를 메기며 받는 방식으로 부르고 가사를 바꾸어 흥을 돋운다.

활동방법

☒ 시청각 ☐ 공개토론 ☒ 워크샷 ☐ 게시 및 전시

노통이의
도움활동

이제 노통이는 민요의 제목을 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에 서는 뭔가 보여주겠다고 정신을 바짝차려 악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한 조각의 악보에는 “에헤-요 에헤- 요 에헤요 --- 님 만나 보-겠네--”라고 써있으니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정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들 서서 자기악보를 뚫어져라 들여다보고 있으니깐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데.... 악보를 한번 읽어보니 아마 노래의 처음은 아니고 후렴구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병석이가 자기좀 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모든 친구들이 그를 쳐다보았지만, 막상 당사자인 병석이는 그저 자기를 봐달라고 소리칠뿐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병석이는 계속 소리칩니다. 그때 옆에 악보를 뚫어지게 쳐다 보고 있던 성표가 자신있게 “한오백년”을 소리치자 영길이와 혜란이가 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언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던 저는 긴장감을 더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큰 소리로 “에헤요, 에헤요, 님 만나 보겠네”를 소리치자 태형이가 반갑다는듯이 제게로 달려오며,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라고 하며 몽금포 타령의 첫부분을 부릅니다. 그리고 준희가 “금일도 상봉에 님 만나 보겠네”를, 경호가 “에헤이야



에헤이야 에헤이야 에헤이야”하며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뽕
금포 타령을 모두 부르고 메김질까지 하는 동안에도 병석이는 계속
해서 자기 좀 봐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도움자료

□ 민요를 부르는 형식

우리 민요의 특징은 소리를 메기고 받는 것에 있다. 서양 민요는 대부분 같은 가락을 혼자 또는 여러명이 부르지만 우리민요는 흔히 한 사람이 앞소리를 부르면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를 합창으로 부르는 데 이를 ‘메기고 받는다’고 한다.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 일정한 모양새로 일을 하는 농사일이나 똑같은 노를 저어야 하는 뱃일 따위에서 처음에는 느린 가락으로 일하는 사람의 감정을 느긋이 풀어주다가, 일의 진척에 따라 점점 빨라지며 신명을 돋워 절정에 이른다. 고된 일과 신나는 놀이를 하나로 엮었던 조상의 슬기에서 비롯된 우리 민요의 흥겨움은 비교적 단순한 똑같은 가락과 노래말을 되풀이하는 뒷소리만 따라하는 것으로도 배가된다. 뒷소리로는 많이 알려진 ‘강강술래’, ‘옹헤야’, ‘에야디야’ 등을 비롯해 민요의 수만큼이나 많은 종류가 있다.

활 동 2 자연과 벗하여 시조를

활동내용

- ▷ 시조를 정취있게 부를 수 있는 야외공간에서 5분동안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자연의 정취를 느낀다.
- ▷ 음의 고조, 음의 길이, 발음의 변화에 주의하여 기본적인 평시조의 선율을 반복하여 부른다.
- ▷ 각자 주제를 선정하여 시조를 짓는다.
- ▷ 자기가 지은 시조를 평시조의 기본가락에 맞추어 부른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현지답사 ☒ 강의 ☐ 게시 및 전시

오래간만에 동네 뒷산의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동네 양로원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시조를 가르쳐 주시겠다고며 흰 수염을 날리시며 앞장서 걸으셨고, 저와 친구 몇명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우장산 꼭대기에 오르니 넓은 논둑로 김포공항이 보이고, 반대편으론 뻑뻑히 서 있는 건물들, 그리고 한강 건너편의 난지도가 그 훗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땀을 식히려고 자리에 앉자 할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며 “조용히 앉아서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소리를 들어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자연에도 입이 있는지 무슨 소리를 들어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격한 표정에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산에 오르느라 땀에 젖은 저의 등을 살며시 식혀주는 바람소리를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나무소리가 들립니다. 비록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지만 정말 나뭇잎이 우리를 환영하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리는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해서 눈을 떠보니 할아버지께서 평소와는 아주 다른 목소리로 “동차---아 이---” 하시며 아주 느리고 낮은 소리를 내시기 시작하십니다. 너무 낮은 속도라 무슨 말인가를 알아 들으려 눈을 뜨자 할아버지께서는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와 함께 들어야 제 맛이 난다고 하십니다. 다시 눈을 감고 앉아 할아버지의 시조를 듣자 마치 자연과 저와 시조가 하나가 되는 느낌입니다. 읽으면 10초도 걸리지 않을 가사를 자그마치 4분정도 걸려 부르시고 시조를 마치신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눈을 뜨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시조로 써보라고 하십니다. 이 노통이는 무언가 진취적인 기상을 시조로 읊기려 “최고의 정상들을 노리어 보아라, 수고의 열매들은 열리는 법이니, 웅장한 나의 미래를 창조하여 나가라”라고 자신있는 글씨체로 적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시조가 주로 3개의 음으로 되어있고, 소리를 내거나 흘러버리는 데에 시조의 묘미가 있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쉬운 장단을 익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시조를 읊어보라고 하셨지만, 처음이라 매우 힘들어 한장 부르는데 10분 넘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산 아래의 세상을 보며 저는 제가 지은 시조를 읊습니다.
 “최고----의-----정사----아----앙---드---을 노리----어----
 보아----라-----”



도움자료

□ 시청각 자료

- 「김월하 시조 1집」 (아시아 레코드사/1965년)
 현대시조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는 김월하의 음반으로 ‘춘면곡’ ‘바람은 지동지둥’이 담겨져 있다.
- 「21세기를 위한 한국의 전통음악 시리즈, 한국의 전통음악 ‘시조’/김영기, 이동규」 (해동물산 HAEDONG-119)
- 「국악 제 1집, 청산리 벽계수야/김월화」 (SKC SKCD-K-0004)
- 「국악의 향연 제22집, 시조, 단가/김월화」 (중앙일보사)
- 「한국의 전통음악 제 4집 ‘성악’,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지름시조/김월화, 김호성, 이양교」 (지구레코드 JCDS-0197)
- 「한국의 음악 시리즈 제 1집, 궁정음악 아악편/평시조/이양교」 (지구레코드 JCDS-0076)
- 「통일염원 노래집, 평시조/김월화」 (GRCD-012)

활동 3 나도 판소리 한 대목쯤은

활동내용

- ▷ 북과 판소리 창본을 준비하고 판소리 한 대목을 선정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듣는다.
- ▷ 북장단에 맞추어 한 대목씩 따라 불러보고 이어서 전체를 부른다.
- ▷ 명창들이 부른 그 대목을 다시 한번 듣는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현지답사 ☐ 공개토론 ☒ 워크샷 ☐ 토론

노통이의 도움활동

판소리 하면 생각나는 것이 가사를 잘 알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는 흥보가나 심청가, 춘향가를 볼 때에는 가사를 통해 그 내용을 아는 것보다 그때 그때의 상황을 보고 알아 듣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제법 구색을 갖추기 위해 판소리의 가사가 적힌 창본과 북을 준비해서 판소리의 한부분을 배우려고 모였습니다. 창본은 우리들에게 많은 효성과 양보의 덕을 가르쳐 주는 심청전과 흥부가를 선택합니다. 흥부가는 그의 형인 놀부의 심술을 노래하는 빠른 장단의 자진모리로 첫머리가 시작하는데, 우리의 흥도 돋구기 위해 이 부분을 먼저 배웁니다. 창본은 “놀부심사 불작시면 대장군방벌목해 오귀방에 이사권코 삼살방에 집짓기고 제고랑제 빼감추어 불난데 부채질 소대상에 제청치고 야장할제 외장치고 혼대사에 싸개치고 다된 혼인은 파의쳐 장에가면 억매흥정 외상술값 억지씨”라고 써 있어 그 뜻을 이해하는 데에만 30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진모리 장단을 익힌 후 가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북따로 노래따로였다가 차츰 재미있는 가사와 박자의 묘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운 심청전의 한대목을 배우기로 합니다. 영화 서편제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온 심청전의 마지막 부분인데 “심청이 거동보아라 부친 앞으로 우르르르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한번 부르더니”라는 가사입니다. 장단은 자진모리로, 이 대목

흥부가

자진모리

국립국악원 《한국음악》 제13집



놀부심사 불작시면 내 장 군방벌 목해 오 귀방에이시 권코



삼삼방에십 질기고 새 골할 제빠감 주이 — 물난대부채전



소대상에 제 칭치고 야 장할 제외장 치고 혼 대사에 싸개 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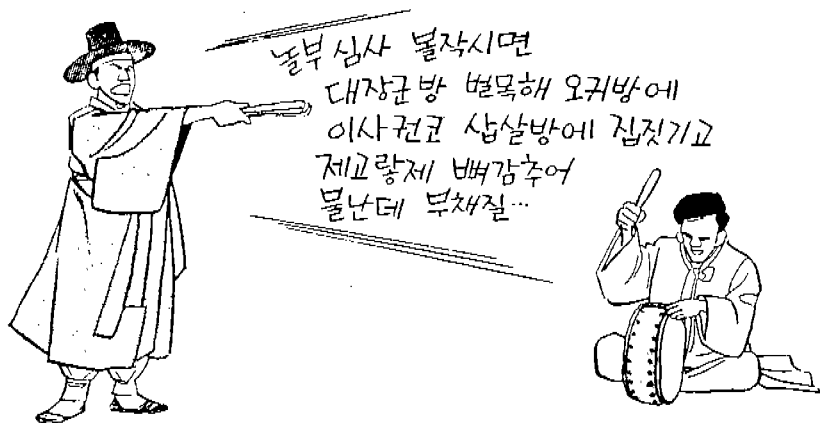
다 된혼인은 파외쳐 장에 가면억 매홍정 외상술 값억시새

박	1			2			3			4		
사	시	이	임	칭	이	—	거	도	응	보	아	라
	부	친	앞	으	로	—	우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르	로						
설				부	친	외	목	으	울	아	안	고
		아	이	고	—	—	아	버	지	이	—	—
	—	—	—	—	—	—						
			하	안	버	언	부	르	으	더	니	이

에서는 ‘괴대죽’이라는 창법을 쓰며, 참으로 부르기 힘든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소 목소리가 큰 동호가 으뜸입니다. 동호는 자신있게 소리를 질러 봅니다. 호흡이 맞지 않아 소리가 끊어지기 일쑤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많은 박수를 받습니다. 녹음된 테이프를 들어보면

그리 힘들지 않게만 느껴지는데 판소리를 해보는 것이 무척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움자료

□ 판소리의 창법에 대하여

판소리에서는 선천적으로 풍부한 성형에 목구성이 아름답고 애원성이 낀 목을 ‘천구성’이라고 한다. 천구성 중에서도 목이 약간 쉼 듯한 ‘수리성’을 가장 이상적인 목으로 친다. 그러나 천구성을 타고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을 믿고 공부를 게을리해 명창이 되지 못한 예가 많으므로 피나는 수련끝에 얻은 ‘득음한 목’을 더욱 높이 평가한다. 판소리 발성의 기초는 목에 변화를 주지 않고 뱃속에서 바로 위로 뽑는 ‘통성’이다. 통성을 바탕으로 하여 양성(미는 목)과 음성(당기는 목)을 정확하게 구분해 써야 한다. 또한 아설순치후(아설순치후)아 발성기관의 기능을 잘 살려 5성을 분명히 해야 하며 모음의 발음도 뚜렷해야 한다. 특히 어금니 근처를 울려서 내는 아성은 ‘아귀성’이라 하여 매우 중요시한다. 선천적으로 음역이 넓지 못한 사람은 ‘세성’이나 깎아서 곱게 다듬은 ‘깎는 목’으로 소리를 내기도 한다. 판소리의 음역은 서양음악보다 훨씬 넓어 최상성에서 최하성까지 7옥타브나 된다. 이러한 기본발성을 바탕으로

하여 판소리의 목 성음변화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칠성 : 쇠망치와 같이 강건하고 딱딱한 소리
 - 발발성 : 떨면서 나오는 변화된 소리
 - 귀곡성 : 신의 울음소리와 같이 신비하고 음울한 소리
 - 짙는목 : 소리의 어떤 요점에 맛이 있게 짙어내는 소리
 - 떼는목 : 소리를 하다가 어느 경우에 뗫어서 꼭 잘라 떼는 목소리
 - 마는목 : 느린 목소리를 차츰 빨리 돌려 차근차근 말아 들이는 목소리
 - 노랑목 : 기교에 치우쳐 넘치고 굴러 내리는 소리
 - 마른목 : 아주 깔깔하게 말라버린 목소리
 - 굳은목 : 수리성에 굴곡이 없이 아주 뻗뻗하고 멋없이 나오는 목소리
 - 엮는목 : 사뻐사뻐 아주 멋있게 엮어 내는 목소리
 - 찌는목 : 평범하게 소리를 하다가 쥐어 찌는 듯한 맛 있게 내는 목소리
 - 찌는목 : 최상성을 내고 높이 찢어 내는 목소리
 - 파는목 : 아래로 파고 들듯 내는 목소리
 - 둥근목 : 딱힘이 없고 원만하게 내는 목소리
 - 너느목 : 소리를 쭉쭉 뻗어 넣어 놓은 듯한 목소리
 - 튀는목 : 소리를 평성으로 하다가 갑자기 위로 튀어 나오는 목소리
 - 엮는목 : 소리를 바로 해나가다가 한번 엮어보는 목소리
 - 조오는 목 : 목소리를 뗫어 떼려고 바짝 조아 들이는 목소리
 - 뿔스린 목 : 평탄하게 나가다가 휘감아 뿔아 올리는 목소리
- 자료 : 이규섭, 1994.

□ 판소리 명반

- 「동편제 판소리」 (소리 : 송만갑, 송기덕, 이선유, 장관개, 김정문, 박중근/고수 : 한성준외/서울음반 SOER-069(1LP)/SRCD-1064(1CD)/유성기 음반 북각/1913-1935년 원반 녹음)
- 동편제의 대명사격인 명창 송만갑과 그의 아들 송기덕, 동편제의

원형을 끝까지 고수했던 이선유 등의 녹음이 담겨 있다.

○ 「박록주 홍보가, 춘향가, 숙영낭자전」 (고수: 김동준/아세아 레코드 ALC-1781-1788(8MC)/60년대말에서 70년대 중반에 녹음)

시대최고의 여류명창으로 꼽히는 박록주의 장기가 8개의 카세트 테이프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 「임방울 수궁가」 (고수: 김세준/아세아 레코드 ACD-143. 144(2CD)/1957년 실황녹음)

너무나 유명한 임방울의 수궁가 음반이다. 임방울의 현란한 목놀림, 고수의 북가락, 관중의 추임새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실황음반은 없다. 옛부터 귀명창들의 필청음반으로 유명한 음반이다.

○ 「박봉술 홍보가 수궁가」 (고수: 김명환/한국 브리태니커회사 뿌리깊은 나무 판소리 전집 중 7LP/1980년경 녹음)

광복이후 소리꾼 가운데 정응민과 함께 최고의 명창으로 평가되는 이가 박봉술이다. 소리꾼으로는 최악의 조건의 껍인목을 가지고 갖가지 소리질을 짜내는 그의 기량이 이 음반에 잘 담겨 있다. 명고수 김명환의 북 솜씨도 이 음반의 좋은 감상거리이다.

□ 시청각자료

○ 「서민예술의 정수 - 판소리」 (MBC/한국문화의 원류를 찾아서/87. 11. 17/60분)

문학과 음악과 극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판소리를 통해 삶의 어려움을 익살과 해학으로 승화시킨 조상들의 지혜를 알 수 있다.

○ 「판소리 기행」 (KBS/한국탐구/88. 1. 8/90분)

우리 민족의 삶속에서 태어난 판소리의 발생배경과 그 음악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조명해본다. 박동진, 조상현, 김소희씨 등 명창들의 창 대목의 배경을 화면으로 엮어나가며 명창 박초월씨의 제자인 김명곤씨가 리포터로 판소리의 이모저모를 설명한다.

활동 4 판소리 명창 선발대회

활동내용

- ▷ 명창 선발대회 개최를 알리고, 부를 판소리 한소절을 자유롭게 선택한다.
- ▷ 참가자들은 명창과 고수, 두명으로 짝을 짓고 연습한다.
- ▷ 심판진에게 아래에서 제시된 점수표를 나누어 주고 채점을 한다.
- ▷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모듬과 고수 및 명창에게 각각 시상한다.
- ▷ 선발된 명창과 고수의 무대를 마련하고 구경꾼들은 무대의 주변에 편안하게 둘러 앉아 축하공연을 한다.

◎ 채점표

소 리	발 림	고수의 추임새	고수와와의 조화	총 점

활동방법

☐ 시청각	☒ 워크샷	☒ 역할연기	☒ 구안법
------------------------------	---	--	---

노통이의 도움활동

드디어 명창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명창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통이와 동호가 한 모듬이 되어 손과 발 그리고 입까지 맞춘지도 벌써 1주일입니다. 먼저 참가할 판소리의 한 대목을 선정하는데 반나절이나 걸립니다. 이해하기 쉬운 가사를 선택하면 장단이 힘들고, 장단이 쉬우면 가사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심사숙고 끝에 홍보가에서 ‘화초장 타령’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동호의 큰 목소리를 십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동안 동호의 목이 완전히 쉬고, 저의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베일 정도로 연습을 충분히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강력한 우승후보인 병석이와 완선이 모듬이 어떤 판소리를 들고 나올지가 걱정됩니다. 더구나 그들은 남녀혼합에다가 소리를 맡은 완선이는 높은 소리를 잘내는 것으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드디어 선발대회 당일. 출전한 모듬은 저희를 포함하여 모두 다섯 모듬입니다. 상대방의 점수를 채점한다는 것이 조금은 쑥스러웠지만 선의의 경쟁을 약속한 마당에 치사한 짓은 서로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죠. 우리의 참가순서는 세번째. 강력한 우승후보인 병석이 모듬은 4번째입니다. 예상대로 우리보다 먼저 판을 벌린 모듬들은 고수와 소리꾼간의 조화가 없거나 한쪽의 힘에 치우쳐 보입니다. 무대에 오른 동호와 저는 일단 방청객들에게 큰절을 올렸죠. 잠시 숨을 돌리고 고수인 저의 북소리와 함께 동호의 육중한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구나 얼시구나 화초장 절시구나 화초장...” 그 뒤를 이어 놀부가 화초장 이름을 잃어버린 부분의 대사에는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기 위해 ‘장’자로 끝나는 이름에 ‘스키장’, ‘콘서트장’, ‘주방장’ 등을 들먹이기까지 하자 청중들의 환호는 더욱 높아집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 동호와 저는 소리판이 끝난 후 두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청중에게 답례를 하고 큰 절을 또 한번 합니다. 점수를 올리기 위해. 다음은 우리의 라이벌인 병석리와 완선이가 등장합니다. 평소에도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온 완선이가 무대에 오르자 특히 남학생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그들의 소리판이 시작됩니다. 그

들이 선택한 판소리는 심청가 중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입니다. 멋진 선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수의 무거운 북소리와 함께 완선이의 낭랑한 목소리로 “심청이 거동봐라 바람맞은 사람같이 이리비를 저리비를...” 모두들 넋이 나간 표정들입니다. 저마저도 넋을 잃고 마치 제가 뱃사람이 된 것처럼 애꿎은 감정이 솟아났으니까요. 어떤 친구는 눈물을 글썽거렸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부분에서는 드디어 성표가 흥분하여 “안돼”라고 소리치며 무대로 뛰어들려고까지 했으니까요. 더구나 고수인 병석이는 자신의 그 벌레같은 눈썹을 흔들거리며 북을 쳐대고, 완선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마치 자기가 물에 빠지는듯이 쓰러지기까지 했으니, 그 광경이란... 결국 저와 동호는 채점표에 점수를 쓰는 대신에 ‘졌다’라는 글을 쓰고 맙니다. 명창으로 뽑힌 완선이와 최고의 고수로 뽑힌 병석이의 답례공연이 있는 뒤, 참가자와 관중 모두는 “날좀 보소”로 시작하는 밀양아리랑을 부르며 명창대회를 마칩니다. 다음 명창대회는 언제 열릴지 기대가 큼니다.

도움자료

□ 판소리 일반용어

○ 시김새

시김새라고 할 때의 ‘시김’이란 의미는 ‘소화시키다’, ‘분한 마음을 가라 앉히다’ 등에서 온 ‘삭임’을 뜻하며 판소리 창자가 수련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그 가락이 제대로 잘 삭고 익어서 예술적인 멋을 성취하게 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즉 ‘시김새가 좋다’라는 말은 예술적인 멋이 풍부하다는 것과 같다.

○ 불임새

음악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더하기 위해서 쓰는 기교를 의미하는 불임새에는 완자걸이, 잉애걸이 등이 있다. 완자걸이는 가락을 늦추었다 당기었다 하며 얼핏 들으면 박자를 불규칙하게 부르는 것 같이 함으로써 그 톤에 묘미를 더해가는 창법이다. 잉애걸이는 가락이 박자의 사이사이를 비껴 나가는 창법으로 ‘잉아’에서 따온 말인 듯 하다.

○ 추임새

판소리를 할 때 고수 또는 청중이 창자의 흥을 돋구어 주기 위한 감탄사를 추임새라고 한다. 소리를 맺고 끊는 대목에서 고수가 적절하게 ‘조오치’, ‘얼씨구’, ‘잘한다’, ‘으흠’ 등을 쓰며 신명을 불어넣는 것으로 소리의 강약과 휴지부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대마치 대장단

판소리에 쓰이는 리듬 기교의 하나로서 기교없이 리듬과 선율이 원리 원칙대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선율의 시작과 끝이 장단의 기본틀에 맞게 진행되며 원래의 리듬형태를 벗어나지 않는다. 리듬감을 강조하는 음악에서는 대마치 대장단으로만 구성되면 단조롭기 때문에 엇붙임, 잉애걸이, 완자걸이 등 붙임새의 기교를 쓴다.

○ 이면(裏面)을 그린다

이면이란 판소리의 어느 대목의 사설 내용이나 그 철학적 바탕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면을 잘 그렸다’는 말은 어느 대목의 내용이나 철학적 바탕을 판소리 음악으로 잘 표현했다는 뜻이다. 즉, 내용적 측면과 음악적 측면이 잘 조화가 되었다는 뜻이다.

○ 갈대를 간다

예술적인 효과를 살리기 위해 최대한의 기교를 부리는 창법을 말한다. 대개 소리를 길게 늘어 빼는 계면조의 경우를 다양하게 구사한다는 점에서 ‘대마치 대장단’의 창법과 대칭된다고 할 수 있다.

○ 귀명창

판소리를 할 줄은 모르지만 많이 들어서 깊이 감상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귀명창이라고 한다.

○ 아니리

판소리 한 대목의 소리에서 다른 소리 대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유리듬으로 사설을 엮어 가는 것을 ‘아니리’라고 한다. 말하는 식으로 엮어가는 ‘말조 아니리’와 소리하는 식으로 엮어가는 ‘소리조 아니리’로 구분한다. 아니리는 사건의 변화, 시간의 경과, 작중 인물들의 대화, 주인공의 심리묘사, 작중 인물의 독백 등을 전달하고 창자의 휴식 기회를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발림

창이나 아니리가 언어에 의한 표현이라면 발림은 몸짓에 의한 표현이다. 연극에 있어서의 액션도 리듬을 요구하지만 판소리의 발림은 무용적이면서도 고도의 축약성이 요구된다.

○ 더늌

판소리의 유파나 가풍에 따라 계승되어 오는 특징적인 대목이나 음악적 스타일을 일컫는 것으로 ‘더 냇다’에서 온 말인 것으로 추정된다. 어떤 명창이 부른 판소리의 측정한 대목이 만인에게 공감을 주고 격찬을 받게 되면 그 대목은 ‘아아아 더늌’이라고 말하게 되고 후배명창들에 의해 계승된다. 송홍록의 ‘귀곡성’, 이날치의 적벽가 중 ‘새타령’, 임방울의 춘향전 중 ‘쑥대머리’ 등이 유명한 더늌이다.

○ 바디

판소리 한 판의 전체적인 짜임새를 바디라 한다. 판소리의 질적인 우열을 비평할 때 ‘바디가 좋다’, ‘바디가 나쁘다’ 등으로 표현하고 개인의 한 판을 가리킬 때 ‘권삼득 바디’, ‘박유전 바디’ 등으로 표현한다.

○ 득음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팔려가는 대목인 ‘범피중류’를 들어보면 소리의 변화무쌍함을 느끼게 된다. 심청이 심봉사와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계면조의 중모리였다가 너른 바다에서 폭풍이 일때는 자진모리도 돌다가 파도가 배를 삼키는 듯한 휘모리로 몰아친다. 이처럼 변화무쌍하고 자유자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지를 ‘득음’이라고 한다.

자료 : 이규섭, 1994.

3. 유의사항

- ◎ 우리노래 부르기과정은 우리 노래를 직접 신명나게 불러보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 ◎ 민요를 장단에 맞추어 메기며 받으며 직접 불러보거나,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과정에서 자신의 느낌을 재미있는 동작으로 표현하여 민요가 가락과 함께 가사와 춤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예술 분야임을 느끼도록 한다.
- ◎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조를 야외로 나가 자연을 느끼며 불러보고 직접 지은 시조를 불러 본다.
- ◎ 판소리의 주요대목을 직접 불러보고 가성이 없는 소리 서민들의 진실과 애환, 그들의 원색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직접 판소리 판을 만들어봄으로써 판소리가 소리꾼, 고수, 구경꾼이 한데 어울려 벌이는 수준 높은 놀이판이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4. 참 고

□ 시조

◎ 시조의 종류

시조는 처음에는 평시조의 하나였던 것이 차차 발전하면서 여러 형태의 변형시조가 파생되었다. 시조는 주로 평시조, 지름시조, 사설시조로 나눈다. 시조의 원조격인 평시조는 원래는 ‘평’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고 지름시조나 사설시조가 생긴 후 그것들과 구분을 하기 위해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평시조란 첫음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게 시작하는 시조라는 의미이다. 지름시조란 처음부터 음을 질러 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두거시조라고도 한다. 지름시조는 초장만 평시조와 다를 뿐 중장과 종장 가락은 같게 부른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 가사가 긴 장형시조를 말하며 율음시조, 편시조라고도 한다. 아무리 가사가 길어도 평시조의 장단에 맞추어 불러야 하기 때문에 사설시조는 시조다운 유장하고 넉넉한 맛은 덜하다고 할 수 있다.

◎ 시조를 부르는 자세

시조를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자세에는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된다. 시조를 부르는 사람의 자세는 앉아 있는 자세가 단정해야 하고 얼굴은 정색을 하여야 하며 눈은 바로 보아야 하고 손은 모아 가져야 하고 발은 꿇어 앉아야 하고 소리는 맑고 무거워야하고 겸손한 뒤에 노래를 불러야 하고 노래를 부르다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시조를 듣는 사람의 자세는 무릎을 세우거나 누어 앉아서는 안되고 얼굴빛은 변하지 말고 결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흔들려 박을 치지 않고, 발을 뺄거나 흔들지 말고 혼자서 말하지 않으며 아무렇게나 칭찬하지를 말며 소홀히 들어서서는 안된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말하는 시조를 부르거나 듣는 자세였다.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이러한 규범만 보아도 지레 겁을 먹게 되지만, 시조를 부르고 듣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자세는 시조를 실제로 부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시조의 발성법

시조를 배우는 첫걸음은 발성이다. 처음에는 느리고 호흡이 길고 무엇보다도 몸에 배어있는 서양음악의 발성습관으로 힘이 들기는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시조의 발성은 평성, 요성, 퇴성의 세가지이다. 평성이란 한 음을 흔들림없이 길게 뻗어내다가 그 박의 끝머리에 조금 흔드는 것을 말한다. 요성이란 심하게 흔들려 내는 소리로 남도민요나 판소리와는 조금 다르다. 퇴성이란 어떤 음에서 다음 음으로 내려 갈때 흘러 내려가는 소리이다. 이 세종류의 발성법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시조를 익히는 기본단계가 된다.

□ 유명한 판소리 한대목

◎ 춘향가

○ 쑥대머리

춘향이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하고 옥에 갇혀 이몽룡을 그리며 자신

의 처지를 한탄하는 대목이다.

○ 어사또 출두 대목

‘이날인 즉 본관 사또 생일 잔칫날인데……’의 아니리로 시작되는 이 대목은 어사또의 출두에 허둥대는 사또와 이방 등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 이별가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장면으로 사랑가와 더불어 춘향가의 백미로 불리운다.

◎ 심청가

○ 범피중류

벧사람들을 따라 인당수로 가는 심청의 심경을 노래한 것으로 심청가 중 대표적인 대목이다.

○ 부녀상봉 대목

황후가 된 심청과 심봉사가 상봉하여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심봉사가 눈을 뜨게 된다는 극적인 대목으로 심청가의 대미를 장식한 대목이다.

○ 화초타령

인당수에 빠졌으나 살아난 심청이 옥황상제의 수궁에서 온갖 화초를 구경하는 대목이다.

○ 황성가는 대목

황성에서 베푸는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심봉사가 개울에서 목욕을 하다 봉변을 당하는 정면으로 해학의 미가 살아있다.

◎ 적벽가

○ 적벽대전

백만대군을 잃고 퇴로하다가 관우를 만나자 옆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조조의 모습에 대한 것으로 적벽가 중에서 가장 통쾌한 대목이다.

◎ 수궁가

○ 토끼가 자라를 조롱하는 대목

별주부의 꾀에 넘어가 수궁에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육지로 돌아온 토끼가 별주부를 조롱하는 장면이다.

◎ 흥보가

○ 놀부 심술 부리는 대목

‘놀보란놈 심사 보소……’로 시작하는 해학적인 가사와 우스꽝스러운 발림이 돋보이는 놀부의 심술을 나열한 대목이다.

○ 박타령

홍보와 그의 마누라가 박을 타는 장면으로 비단타령은 매우 해학적이다.

○ 놀부 제비몰러 나가는 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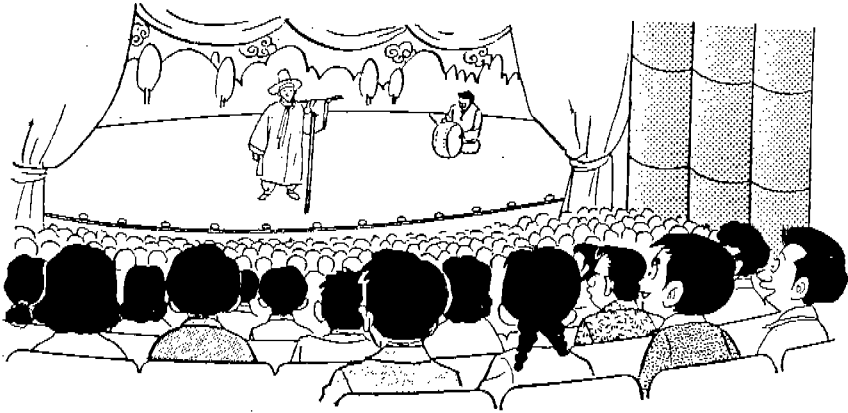
‘제비몰러 나간다’로 유명한 대목으로 놀부가 박씨를 얻으려고 제비를 후리러 가는 대목인데 놀부의 미련스러움과 포악한 거동이 재미있다.

□ 소리꾼, 고수, 관중의 삼위일체의 극음악

판소리란 어떤 이야기를 소리로 엮어 벌이는 판이라는 뜻이다. 소리꾼이 소리판을 이끌어간다. 소리꾼은 소리도 하고 중간중간에 이야기의 내용을 재담을 섞어가며 말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를 ‘아니리’라고 한다. 창이나 아니리를 하다가 내용이 맞는 동작도 곁들였는데 이것은 ‘발림’이라고 한다.

그러나 판소리는 소리꾼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판소리를 할 때는 고수, 즉 북을 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추어 줄 뿐만 아니라 추임새를 넣어 소리의 틈을 메워 준다. 추임새란 고수가 북을 치는 중간에 ‘좋지’, ‘잘한다’, ‘으이’, ‘얼씨구’, ‘그렇지’하며 소리꾼의 신명을 돋워주는 소리를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명창이라 하더라도 고수가 뒷받침을 잘 못하면 소리가 제대로 풀리지 못해 기량을 한껏 발휘하지 못한다. 판소리에서는 또한 구경꾼이 있어야 한다. 추임새는 고수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경꾼도 소리를 들으며 얻는 감동을 추임새로 표현한다. 추임새를 함으로써 구경꾼은 ‘관’의 적극적인 주체가 된다. 추임새 없는 판소리는 진짜 판소리라고 할 수 없다. 판소리는 이처럼 소리꾼, 고수, 구경꾼이 한데 어울려 벌이는 수준높은 놀이판이다.

우리 노래 새로 습창기



내가 만든 우리노래집
우리시에 우리가락을
우리노래 공연장을 찾아서
우리노래 총체극 올리기

1. 활동과정

개 요	우리노래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깨닫고, 새로운 우리노래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활 동 과 정	자기 고장에서 전해지고 있는 노래를 직접 찾고 채록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우리의 가락에 따라 노래로 만든다.	우리노래 공연장을 찾아가 우리노래관이 지닌 생동감을 경험한다.	우리노래를 사용하여 적당한 주제의 총체극을 공연한다.

2. 활동내용

활동 1 내가 만든 우리노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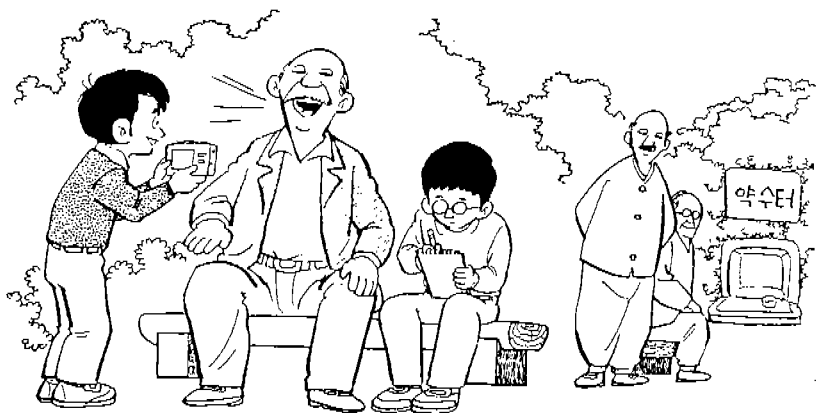
활동내용

- ▷ 자기가 사는 지역의 노래에는 무엇이 있는지 파악한다.
- ▷ 주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방문하여 그 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노래가사를 수집하고 노래를 녹음한다.
- ▷ 가사와 녹음테이프를 정리하여 내가 만든 우리노래집과 테이프를 만든다.

활동방법

☒ 시청각 ☒ 토론 ☐ 게시 및 전시 ☒ 현지답사

저의 고향은 서울이기 때문에 저는 고향의 노래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중가요인 ‘서울의 찬가’가 제 고향의 노래로 느껴지니까요. 그래서 자기고향의 노래를 찾는 활동은 별로 자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의 노래를 찾아오는 것이 이번 활동의 중요한 내용인데, 경상도나 전라도 등 다른 지역에는 나름대로 그 지역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노래가 많아서 괜찮겠지만, 서울에는 그런 노래가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와 같은 지역명은 옛날에는 없었겠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현재의 서울, 경기지역의 우리노래를 찾기로 마음먹습니다. 지금이야 서울이다, 경기도다라는 구분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한양’이었을테니까요. 그리고 혼자서 노래를 찾는 것은 재미도 없고 힘도 들것 같아서 고향이 경기도인 영길이와 함께 잘 알려진 노래보다는 잘 전해지지 않은 노래를 찾기로 합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노래라? 이런 노래가 지금 어디에서 불리워질까? 영길이와 저는 우선 지도를 준비해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특징별로 농촌지역, 어촌지역, 교동이 발달한 지역, 상업이 발달한 지역 등으로 나누어 봅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이 생각한 것보다 워낙 넓어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네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지금이야 서울이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주로 하는 시골이었을테니까요. 다음에는 준비물을 검사해야죠. 녹음기, 녹음테이프, 필기도구, 지도 등등... 그럼 어디를 간다? 일단 우리가 사는 지역의 역사에 대한 자료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예상대로 옛날 모습의 사진이나 인물 등에 대한 자료는 많지만, 노래만 담긴 자료를 찾기로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몇 동네에 대한 옛이름이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상 보다 적은 자료를 수집한 우리는 힘없이 도서관이 있는 산을 내려오는데, 산 중턱의 약수터에 할아버지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영길이와 저는 동시에 눈을 마주치며 그 쪽으로 향합니다. 할아버지들께 노래 잘하시는 분이 어드분이나고 물어 보니, 이구동성으로 한 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분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찾아뵙는 이유를



말씀드리니 기특하다고 하시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잘 부르셨다는 노래를 몇가지 들려 주십니다. 저희들은 쟁쟁하게 녹음기를 틀었고, 가사를 받아 적습니다. 물론 다음에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의 연세와 주소, 전화번호까지 받아 적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다른 할아버지들께서도 이런저런 노래를 들려 주십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흥이나는 노래를 부르시면 옆에 계신 할아버지들이 어깨를 덩실거리시기까지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된 테이프를 들어보며 다시 가사를 정리하다 보니, 이미 알려진 노래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할아버지마다 독특한 창단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다른 노래로 들렸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옛날 가요를 전통적인 가락으로 부른 것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새로운 노래를 겨우 한곡정도 찾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처음 들어보는 민요가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노래를 찾아보는 짧은 프로그램입니다. 영길이와 저는 내일 방송국으로 우리가 찾은 노래의 테이프를 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노래는 더 잘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 잊혀지고 있는 우리노래 시청각자료

○ 「아리랑」 (MBC/한국인의 얼굴을 찾아서/86. 12. 5/120분)
1930년대의 신파극 영화 '아리랑'에서부터 오늘날의 '아리랑문화'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일별하고 전국 각 지역 30여곡의 아리랑도 정리·소개했다

○ 「고성민요」 (문화재관리국/1993/40분)

○ 「남도 들노래」 (문화재관리국/1993/13분)

○ 「잃어버린 일노래를 찾아서」 (KBS/한국탐구/1985/90분)
들노래, 보리타작노래, 베틀가 등의 노동요를 발굴·수록하였다.

○ 「한국의 뱃노래」 (KBS/한국탐구/1990/60분)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 산재해 사라져 가고 있는 많은 뱃노래를 살살이 수집하여 영상에 담았다. 먼저 바다 뱃노래로 동해의 속초, 삼척, 영덕, 서해의 인천앞바다 주변, 남해의 삼천포, 충무, 여수 등지의 뱃노래가 소개되고 인제의 한강뱃목아리랑, 단양의 짐뱃노래, 시선뱃노래 등이 아름다운 영상으로 소개된다.

○ 「금강기행, 소리를 따라」 (KBS 영상사업단/1993/45분)

강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금강은 전북, 충남, 충북 삼도의 젖줄이다. 그 금강이 이루어놓은 삶의 터전을 따라 그 가운데 담긴 삶의 숨결 우리민요를 찾아본다.

○ 「남도 베틀가」 (KBS/한국의 미/1990/40분)

아직도 길쌈을 하고 길쌈노래가 전해지는 전남 곡성, 나주, 진도, 보성지방을 돌면서 길쌈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일을 하면서 피로와 시름을 잊으려고 부르는 노동요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알아본다.

○ 「정선 아리랑」 (KBS/한국의 미/1990/37분)

여음아리랑이라고도 하는 정선 아리랑은 아리랑의 변형으로 반드시 강원도 아리랑 뒤에 잇대서 부른다. 느리게 부르는 후렴구는 구슬프고도 아름다와 듣는 이로 하여금 애처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또한 강원도 정선 일대를 돌아보며 정선 아리랑의 자취를 찾아본다.

○ 「평창아리랑」 (KBS/한국의 미/1990/40분)

강원도 평창일대의 아리랑은 면면히 이어져 온다. 평창 아리랑을

통해 본 그들의 애환과 삶의 채취를 소개한다.

○ 「남도의 들노래」 (KBS/한국의 미/1990/39분)

모내기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 풍년을 기원하며 부르는 노래 등 남도의 들노래를 들어본다.

○ 「산촌시가」 (KBS/한국의 미/1990/50분)

강원도 횡성의 산간 마을을 찾아 노동요와 상여소리를 통해 우리민족의 생사판을 살펴본다.

○ 「만가」 (KBS/한국의 미/1990/60분)

상여소리의 문학성과 음악성을 살펴보고 각기 특성있는 여러지방의 상여소리를 소개한다.

○ 「제주의 일노래」 (EBS/전통문화를 찾아서/1992-3/30분)

활동 2 우리시에 우리가락을

활동내용

- ▷ 각 모둠마다 곡을 붙일 시를 선정한다.
- ▷ 시의 이미지를 상상하고 그 이미지와 맞는 우리가락을 찾는다.
- ▷ 시에 우리가락을 붙이고 노래로 부른다.
- ▷ 우리시 우리가락 경연대회를 열어 시를 우리 노래가락으로 가장 잘 표현한 모둠을 선정하고, 발표된 시의 노래집을 만든다.

활동방법

☒ 시청각 ☒ 분임토의 ☐ 강의 ☐ 게시 및 전시

노통이의 도움활동

음악은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락에 얹어 전하는 것이라고 노통이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서는 우리가락에 실리는 것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저와 친구들은 우리가 잘 아는 시에 우리의 가락을 붙여보기로 합니다. 우선 시를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영길이는 어디서 찾았는지, 요즘 제일 인기있는 시라며 최영미 시인이 쓴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제시하고, 동호는 이미 노래로 만들어진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제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시를 선택하기 위해 학교에서 배운 조지훈 시인의 ‘승무’를 선택합니다. ‘얹은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고깔에 감추오고,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듯 두 방울이야,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참 좋은 시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합의 후에 계속 민요타령으로 하자는 영길이가, 판소리로 하자는 동호, 시조로 하자는 저의 주장으로 인해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부분인 ‘얹은사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에 각자 가락을 붙여 보기로 합니다. 가락을 붙이기 위해 옆에서 뽐뽐거리던 영길이가 “바로 그 거야”하며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가락을 그대로 승무에 붙입니다. 그런대로 어울렸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동호는 자신의 큰 목소리로 “얹---은-사---- 하아---얀 고깔은”하며 판소리 타령으로 부르지만 시가 주는 감동과는 멀리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제가 평시조 풍으로 “얹은---- 사---- 하이---- 얹---- 고깔----온---- 고이-- -- 접어 나빌레라----”라고 부르니, 영길이와 동호는 하품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히 앉아 있던 강석이가 자신있는 표정으로

일어서 “얕은사, 하--- 안- 고깔은-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랩송으로 부르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 좋은 시가 소음으로 변하며 친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맙니다.

도움자료

□ 우리시에 우리가락을 붙인 노래

○ 녹두꽃 (중모리) 김지하 글, 조념 곡

1. 빈손 가득히 움켜쥔 햇살에 살아 벽에도 쇠창살에도 노을로 붉게 살아/ 타네 불타네 깊은 밤 녀속의 깊고 깊은 상처에 살아 모질수록 매질아래/ 날이 갈 수록 흠뜨는 거역의 눈동자에 핏발로 살아 열쇠소리 사라져 버린 밤은 끝없고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중모리) 이상화 글, 변규백 곡 (받는 소리)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네 빼앗기겠네

1.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같은 논길따라 꿈속을 가듯 정처없이 걸어가네 걸어만 간다
2.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울린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걸어 봄신명이 가슴에도 지웠네 지웠나 보다
3. 나비 제비야 깎치지마라 맨드라미 마을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 까리 기름 바른이가 지심을 매던 그들이라도 보고 싶네 보고만 싶네

활 동 3 우리노래 공연장을 찾아서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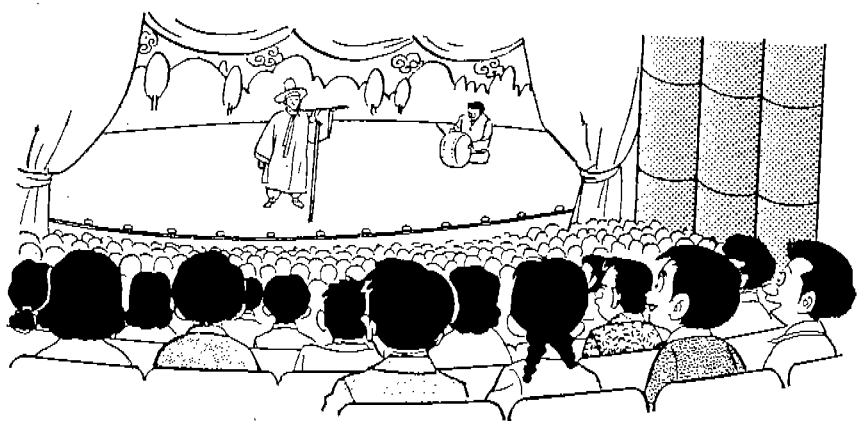
- ▷ 우리노래를 공연하는 장소와 시간을 조사한다.
- ▷ 관람 예정인 우리노래를 미리 조사하여 그 특징을 파악한다.
- ▷ 우리노래 공연을 관람하고 그 느낌을 토론했다.

활동방법

☒ 시청각 ☐ 공개토론 ☒ 구안법 ☒ 현지답사

노통이의
도움활동

얼마전 신문에 국내 유일의 국악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KBS 국악춘추’가 매주 토요일 공연을 상설화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가끔 보면 우리 노래나 춤, 악기 등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KBS 국악춘추’였나봐요. 밤 늦은 시간이고,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재빨리 다른 프로그램으로 화면을 돌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은 우리나라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국악을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오락프로그램이나 영화프로그램은 그렇게도 많은데, 우리노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 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아요. 더욱 저의 눈을 사로잡은 기사는 방송국 공개홀에서 청소년을 위한 특별공연으로 제목도 재미있는 ‘모여라 놀자’라는 공연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국악공연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서 친구들과 같이 공연장을 찾아 가기로 했지요. 판소리와 농악, 경기민요, 시조와 같은 우리노래 뿐 아니라 사물놀이, 가야금산조와 같은 우리의 전통악기도 연주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별로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이던 친구들이 같이 가겠다고 나섰고, 토요일 오후라



시간도 충분하고, 무엇보다도 방송국에 가면 유명한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친구들의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합니다. 여의도로 가는 버스 속은 우리들의 승차로 ‘국악버스’가 되어 버립니다. 민요를 부르는 친구, 점잖게 앉아서 시조를 부르는 친구가 있고 자기가 부르는 노래가 텔레비전에 나올거라고 서로 아우성들이죠. 방송국 안의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간신히 신관공개홀이라는 곳을 찾아가 지정된 자리에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입구에서 나누어준 팜플렛을 읽고 있는데 무대 위의 조명등이 환하게 켜지고 방송국 사람들이 관람객들에게 몇마디의 주의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김영자라는 사람이 나와 판소리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큰 목소리라서 마이크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심청전의 한 대목인데, 지금까지 테이프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어본 어떤 소리보다 심금을 울립니다. 다음에 등장한 사람은 저희들 눈에도 익은 조상현 아저씨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몸집이 훨씬 크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우리에게 판소리의 재미있는 부분을 들려주시겠다고 홍보가에서 나오는 ‘박타령’을 들려주십니다. “시르르르 실근 당겨주오. 에이 에루 당겨주오. 이박을 타거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찰밥 한통만 나오너라... 에이 에루 당기어라 톱질이야...” 처음은 중도리정도의 박자이다가 자진모리로 “시르릉 시르릉 식 식 시르릉 시르릉” 톱질 소리가 빨라지는데, 아저씨는 마치 진짜로 톱질하는 것처럼 몸까지 앞뒤로 흔들거리셨어요. 대부분 청소년인 방청객들도 아저씨의 톱질을 도와주려는듯이 같이 흔들거렸죠.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면서 시조, 산조, 사물놀이연주가 계속되었고 공개방송 막바지에는 방청객들도 모두 같이 경기민요인 널니리야를 부르며 막을 내립니다. 실제로 듣는 우리의 노래가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지는 처음 느껴 봤어요. 거기에서 방송국 구경까지 같이 하니까 재미도 더하구요. 그런데 생소한 산조나 시조가 나오는 부분은 조금은 지루하더군요. 산조나 시조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갔으면 더 재미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다음 주 공개방송에 갈때는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미리 알아보고 예습을 하기로 합니다.

도움자료

□ 국립국악원의 국악공연

국악공연을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은 국립국악원의 국악당 소극장이다. 그곳에서는 1980년대부터 토요일상설 국악공연을 열어왔다. 공연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악과 민속악의 모든 갈래는 물론이고 갖가지 전통문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꾸준히 관람하면 국악의 전모를 꿰뚫을 수 있다.

특히 매달 첫째주 토요일에는 ‘우리음악감상교실’을 연다. 수준 높은 우리음악을 전문가의 상세한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또 토요일상설 국악공연이 자리를 잡아가자 1993년 9월부터는 일요일상설 국악공연을 마련했다.

황금의 주말을 풍기 밝은 우면산 기슭의 국악당 소극장에서 전통음악과 함께 보낼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국악공연장을 쫓아다니다 보면 구경꾼들과 어울려 ‘얼씨구 좋다’ 추임새까지 해가며 관의 한복판에서 흥겹게 어울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활 동 4 우리노래 총체극 올리기

활동내용

- ▷ 다양한 우리노래를 가사로 사용할 수 있는 이야기와 대본을 짠다.
- ▷ 대본과 어울리는 우리노래를 찾고 적절히 연출하여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 ▷ 여러사람들 앞에서 총체극을 상연하고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회와 마무리 잔치를 개최한다.

활동방법

 ☒ 구안법 ☒ 역할연기 ☒ 토론 ☐ 게시 및 전시

노통이의 도움활동

기때해 주십시오. 드디어 이 노통이가 연극무대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을 관람객으로 모시고 우리노래와 장단



을 이용한 총체극을 준비한지 한달하고 반만의 일입니다. 우리노래를 이용한 총체극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대본을 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야기 줄거리는 부모님들에 대한 효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새로운 이야기보다는 기존의 ‘심청전’을 바탕으로 판소리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화와 민요, 시조 등을 모두 사용하기로 했죠. 먼저 내용에 따라 4개의 마당으로 구분합니다. 첫째 마당은 심청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대목, 둘째 마당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보이게 하기 위해 부처님께 드리는 쌀 300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 셋째 마당은 용왕이 심청이를 가엾게 여겨 다시 육지로 보내는 장면, 넷째 마당은 심봉사가 잔치에 참석하여 심청이와 다시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장면으로 구성합니다. 다음에는 각 마당에 맞는 우리 노래와 대본을 골랐고, 등장인물 선정합니다. 주인공인 심청이는 지난번 명창선발대회의 감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완선이가, 심봉사는 동호가, 뽕덕 어멈은 순미가, 용왕은 성표가, 뱃사람은 노통이가 맞게 됩니다. 출연진 외에도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의상담당, 조명담당, 배경음악담당, 연출자 등을 뽑습니다. 필요한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자격제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심봉사로 분장한 동호가 어린 인형인 심청이를 등에 업고 자장가로 ‘새야 새야 파랑새’를 부르며 뽕덕 어멈에게 우유동냥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대사를 노래로 만들 수가 없어서 대부분은 대사로 처리하였는데,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에 자신을 팔아 끌려가는 과정의 장면은 ‘한오백년’, 뱃사람들이 노를 저으며 인당수로 가는 장면은 경상도민요인 ‘뱃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은 지난번 명창 선발대회에서 보여준 완선이의 판소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세번째 마당에서는 용왕으로 분장한 성표가 평시조로 “동창이 맑았느냐 아침식산 무엇일까 아니 이게 웬처녀, 너는 어이 이리왔노”라는 개사곡으로 불렀고, 마지막 마당에서는 뽕덕어미가 심봉사를 떠난 장면에서는 대전부르스라는 가요의 한 부분인 ‘잘있거라 나는 간다’로, 심청이가 심봉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대목에서는 밀양아리랑의 한부분인 ‘날좀보소’로 처리하였고, 이 무대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심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은 대중가요인 ‘뽕하고 해 뜰날’로 처리하여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냅니다. 다양한 우리노래로 심청전을 구성하였지만, 마지막 부분은 모든 참여자가 ‘아리랑’을 합창하며 끝을 맺습니다. 관객으로 오신 부모님들께서는 저희들보다 더 긴장하시고, 더 웃으시며 연극을 즐기십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공연준비를 같이한 친구들끼리 모여 그동안 서로 간에 쌓인 문제점을 토론하고 정리하면서 다음에도 이런 행사가 있다면, 보다 더 멋있고 즐겁게 만들어 보자고 서로 약속합니다. 저 노통이는 어떤 역이었나요? 뱃사람 중 한명인데, 저의 대사는 단 한마디 “어서 물에 뛰어들어라!”입니다.

3. 유의사항

- ◎ 우리노래 새모습찾기과정은 우리노래를 응용하여 새로운 우리노래를 만들어 보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 ◎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우리의 노래가락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 청소년들 스스로 우리의 노래가 지닌 새로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창조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4. 참 고

□ 향토민요에 대하여

민요하면 오늘날 우리들이 방송이나 레코드를 통해 들을 수 있는 통속민요만을 생각하기 쉽다. 우리나라는 전국토가 민요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농촌이든 어촌이든 산간 벽지든 구성진 민요 몇 가락이 없는 곳이 없다. 모 심는 소리, 논 매는 소리, 노 젓는 소리, 미역파는 소리, 등짐소리, 방아 찹는 소리, 베틀노래, 상여 소리, 신세타령, 시집살이노래, 아이 어르는 소리, 자장가.... 이러한 민요들을 향토민요라고 한다. 지금은 부르지 않아 잊혀졌거나 나이든 노인들의 회미한 기억 속에나 남아 있는 이러한 민요들이 대부분이다.

우리가 듣는 통속민요는 전문 소리꾼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민요이다. 전문 소리꾼들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소리를 배우고 또 좋은 소리를 만들기도 했던 까닭에 수준 높은 민요를 보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향토민요의 경우에는 같은 제목의 민요라 하더라도 지방에 따라 가사와 가락이 제각기 다르다. 세련된 맛도 덜하다. 그러나 향토민요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냄새가 물씬 배어있고 소박하고 순수한 토속적인 제취가 물씬 풍긴다.

□ 창작 성악곡

성악곡은 악기의 소리에 의존하는 기악곡과는 달리 사람의 목소리와 노래말을 통해 작곡자의 의도를 청중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국악 중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끈다. 이는 국악과 일반인들과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는 현재의 많은 국악작곡가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에 발표되는 창작 성악곡 중에는 독창곡이 단연 많다. 그 중에는 전통 가곡 형식의 작품이 있는가 하면 ‘국악가요’라는 이름의 대중가요 형태의 작품이 상당히 많다. 다음 몇 개의 국악가요는 일반적으로 많이 불리워지는 노래이다. 우리선율의 맛을 간직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친숙하게 다가오는 국악가요를 만나보자.

곡 명	작 곡 자	연 주	노 래
가시버시사랑 그날이 오면 꽃분네야	이 병 욱 김 대 성 채 치 성	어울림	김일륜 민족음악연구회
산도깨비 소금장수 한네의 승천 초원	조 광 재 조 광 재 김 영 동 김 영 동	슬기둥	슬기둥

□ 우리노래를 접할 수 있는 곳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자료관

○ 민속 전반에 관한 귀중한 자료를 여러 영상매체 등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도서관에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비매품 자료들을 구비하고 있다.

○ 주소 : 서초구 양재동 예술의 전당 내

○ 이용시간 : 10 : 00 - 17 : 30

○ 사용료 : 음악실, 영상실, 도서관, 200원

◎ 국립국악원

○ 겨레 음악의 보존과 발전, 깊이 있는 국민정서를 살리고 보급하며 겨레음악의 뿌리의식을 드높인다는 설립목적에 지니고 있는 국

립국악원은 1000석 규모의 대극장과 소극장을 지니고 있다.

○ 주요공연 : 토요상설 국악공연(매주 토요일 17:00-)에서는 궁중음악, 대금, 가곡, 민요, 민속춤, 사물놀이 등 하루에 6-7작품을 공연한다. 또한 우리음악감상교실(매월 첫째 토요일 14:00-16:00까지)에서는 영상자료와 초청 연주회가 있고 전문가의 상세한 해설이 따른다.

○ 문의처 : 858-3151

◎ 국립민속박물관

○ 최초의 민속박물관은 1945년 예장동에서 문을 열었으며, 1966년 10월 문화재관리국에서 경복궁의 수정전에 민속관을 만들었었고, 1975년 4월에 옛 현대미술관 건물을 인수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 유형의 유물을 전시하기 시작하였다. 1993년 2월부터 옛 중앙박물관자리로 옮겼다.

○ 이용시간 : 09:00 - 18:00

○ 입장료 : 550원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 문의처 : 720-3137

◎ 서울놀이마당

○ 각지역의 탈춤, 풍물, 굿, 풍어제, 소리, 농요, 춤 등의 여러놀이와 의식을 공연하는 서울놀이마당은 우리의 옛 문화를 쉽게 만날 수 있고, 마당놀이가 지니고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다.

○ 주소 : 송파구 잠실동 517번지

○ 문의처 : 414-1985

자료 : 봉천놀이마당, 1994.

참 고 문 헌

- 곽 준(1993), 판소리와 장단, 아트 스페이스.
- 김정수, 고춘선, 허화병(1993), 초중고 교사를 위한 전통음악 학습지도법, 세광출판사.
- 김재호(1991), 음악교육과정에 나타난 국악적 요소 및 지도실태 분석을 통한 국악지도 체계의 재구성에 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화부(1992), 한국의 민속예술 —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33년사.
- 민요연구회 엮음(1987), 노래야 나오너라, 공동체.
- 박창옥 (1992), 국악기초이론, 삼호출판사.
- 봉천놀이마당 엮음(1994), 민속교육자료집, 우리교육.
- 성경린(1994), 국악감상, 삼호출판사.
- 신경림(1989), 민요기행, 한길사.
- 이규섭(1994), 판소리 답사 기행, 민예원.
- 이성재(1994), 재미있는 국악 길라잡이, 서울미디어.
- 이성천(1991), 나도 국악을 가르칠 수 있다, 풍남.
- 이흥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 임수철(1994), OK 국악—민속악편, 정악편, 작은우리.
- 최동현(1994), 판소리란 무엇인가, 에디터.
- 최동현(1994), 판소리 연구, 문학아카데미사.
- 최승범(1992), 한국의 소리를 찾는다, 예은.
- 판소리학회(1992), 판소리 연구 제 3 집, 제 4 집, 판소리학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4), 문화예술 1월호—11월호.
- 한명희(1994), 우리가락 우리문화, 조선일보사.
- 천이두(1986), 명창 임방울, 현대문학사.

시청각자료

- 「가야금 산조의 명인들 1」 (김해선, 심상건, 정남희, 안기옥, 김종기/서울음반SRCD-1101(1CD)/유성기 음반 복각/1920년대 중반—1930년대 말의 원반 녹음)
- 「김대례, 박병천 외 : 진도 씻김굿」 (서울음반 SRCD-1134(1CD)/1991년 녹음)
- 「김용배, 김덕수 외 : 사물놀이」 (오아시스레코드사 OLW-348(1LP, 1CD)/1980년경 녹음)
- 「김월하 : 시조 1집」 (아세아레코드 ALS-1031(1LP)/1965년 녹음)
- 「김정연 : 서도소리」 (성음 SEL-100 111, (2LP)/1980. 4. 14)
- 「김종조, 김주호 외 : 배뱅이 굿」 (서울음반 SRCD-1098(1CD)/유성기 음반 복각/1936년 원반 녹음)
- 「김천홍 : 해금 독주집」 (성음 SEL-RS 199(1LP)/1970년대 녹음)
- 「동편제 관소리」 (소리 : 송만갑, 송기덕, 이선유, 장판개, 김정문, 박종근/고수 : 한성준 외/서울 음반 SOER-069(1LP), SRCE-1064(1CD)/유성기 음반 복각/1913—1935 원반 녹음)
- 「박록주 : 흥보가, 춘향가, 숙영낭자전」 (고수 : 김동준/아세아레코드 ALC-1781—1788(8MC)/1960년대말—1970년대 중반 녹음)
- 「박봉술 : 흥보가, 수궁가」 (고수 : 김명환/한국브리태니커회사 뿌리깊은나무 관소리전집 중 7LP/1980년경 녹음)
- 「박송암, 장벽웅 : 범패」 (중앙일보사 ‘국악의 향연’ 전집 중 27번 음반/1970년대 초반 녹음)
- 「성금연 : 가야금산조」 (고수 : 김명환/성음 SEL-RS 145(1LP)/1984년 녹음)
- 「신채동 : 거문고산조」 (고수 : 김재선/아세아 레코드 ALS-1040(1MC)/1960년경 녹음)
- 「안숙선 : 남도민요」 (예음문화재단/1992년 녹음)
- 「이생강 : 대금산조」 (고수 : 이성진/대성음반 DAS-0238(1LP)/1984년 녹음)

- 「이주환 : 가사, 가곡 선집」 (지구레코드/국악심의번호 8903-S64(5LP/5MC)/가사는 1968년 녹음/가곡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2년 실황 녹음)
- 「임방울 : 수궁가」 (고수 : 김세준/아세아 레코드 ACD-143,1449(2CD)/1957년 9월 실황 녹음)
- 「정농악회 영산회상」 (성음 SEL-100 122 (4LP)/1980-1981년 녹음)
- 「한국고전민요 제 1 집-제 3 집」 (소리 : 목계월, 이은주, 안비취/한국음반 HC-200054-6(3LP)/1982년 녹음)
- 「황병기 : 가야금 작품집 1번」 (장구 : 안혜란/성음 SEL-100 069(1LP)/1978년 녹음)